

총선, 민주주의위기 극복 기회다

2016과제 — 개혁·혁신만이 살길이다

정치적 새해는 기대와 달리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벽두에 대통령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서 충실히 국정을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해라고 역설했었다. 그러나 그 희망과는 달리, 아무것도 제대로 개혁된 것도 없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어느 해보다 실망과 분노로 보낸 한 해였다. 세계가 무섭게 변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서 국민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물음에 정치권은 만족스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보낸 2015년

그러한 불임의 1년은 민주정치의 작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게 만든다. 대내외의 정치적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고 있는데, 정치는 마치 갇힌 시간 속에 담겨있는 양상이었다. 국회는 국회대로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킨 기록을 남겼고, 행정부는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통치행위의 유기적 작동이 결여되어 기대했던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도 없었다. 민주체제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형태의 하나이다. 통치는 정당한 권력행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리고 또한 통치권력의 행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 모두가 행사하는 것 또한 아니다. 민주적 통치형태라는 것도 복수정당의 경쟁으로 권력행사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뽑고 그렇게 뽑힌 소수가 통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체제를 경영하는 통치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는 데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권력행사를 포기한 상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이론과 달리, 민주통치를 우리는 이제 막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따름이다. 어느 평론가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모두라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권력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어느 정치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의 타락이라고 이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전국을 선거구로 가진 유일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교수·정치학박사

대통령 통치권력
제대로 행사못해
국회는 입법권 포기

의식있는 소수의
‘적극적 시민’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

한 권력자이지마는, 좀체 어려운 상태를 맞아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일천만의 무식을 모은다하여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어느 역사가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성 싶다. 일상의 시민들은 각기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이익에 관계되는 사항 이외에는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모든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민주정치에서 설득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도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소속집단의 이념과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의 헌정적 지위는 그것을 넘어 때로는 초월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정의 종국적 지도자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접촉하여 숙의하고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행사의 의무를 유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급 월급쟁이처럼 되어버린 국회의원

입법부인 국회의 사정은 또한 어떤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권력분립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신화에 빠져있지 않았는가. 권력분립이란 삼권이 각기 유기적 관계없이 독립한다는 무정부 상태를 정당화하는 헌정원리가 아니다. 그런 유기적 관계를 우리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속하면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했다. 나아가서 무기력 상태까지 보이며 안주해 왔다. 이것도 권력행사 포기의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야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야당에게 국회라는 건물은 비 맞지 않고 데모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걸핏하면 거리로 나가서 데모군중과 합세하며 국정에 관한 토의와 숙고를 핑개쳐 왔다. 다시 말해 입법권의 포기행위를 계속해 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표행위를 통하여 바르게 통치 받으려는 것이지 스스로 통치하려는 것은 아니거니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2016년 정기총회 공고

대한언론인회 2016년 제30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 건〉

1. 2015년 결산보고
2.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임원개선

2016년 1월 1일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회장 金銀九

謹賀新年

지난해 대한언론인회 발전을 위해 함께한 회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健勝하시고 가정에 항상 祝福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祈願합니다.

2016년 元旦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새해 祝詩

날자 힘껏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자
햇덩이가 불끈 솟구치는
새해 새아침
새로운 꿈으로 날자

아름다운 대지여
성취의 날이여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고

변혁의 투지 힘있는 도전
시련의 길 희망으로 극복하며
오랜 역사의 언덕 위에
튼튼한 바위로 빛나는 성을 쌓자

발전하는 나라 달려가는 길
막을 자 누구인가
미래는 오늘을 딛고 일어서는 것

배려와 포용 순수와 열정
갈 길 멀어도 능름한 첫걸음
할 일이 있고 의욕에 불타며
정의로운 길 열어가자
세상을 부드럽게 적안고
눈부신 꿈의 날개 활짝 펴서
날자 힘껏 날자



김후란

·본회 회우
·시인·예술원 회원

大韓言論人會 제20대 회장 입후보자 공고

대한언론인회 제20대 회장 입후보자로 다음 2명이 등록하였기로 공고함. (2015년 12월 21일 마감, 가나다 순)



박기병(朴基秉)

생년월일 : 1932년 5월 20일 생
주 소 : 서울 은평구 응암로32길 26(응암동)
대한언론인회 입회 : 1980년 12월



이병대(李炳大)

생년월일 : 1941년 11월 10일 생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LG아파트 210-1201
대한언론인회 입회 : 1999년 7월 12일

〈학력 및 경력〉

0-1954년 10월 학도병으로 6·25전쟁 참전
0-춘천사범학교 졸업(현 춘천교대)
0-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특수과정 수료
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취득), 동 언론대학원 특수과정 수료
0-부산일보사 정치부장
0-한국기자협회 회장(10대, 17대)
0-IFJ(국제기자연맹) 제14차 총회 한국대표
0-한국기자협회 고문(현)
0-(주)문화방송 MBC심의실장, 홍보조사실장

0-대전문화방송(주) 상무이사
0-강릉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0-한국방송협회 이사
0-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이사, 상임역
0-한국케이블TV 구로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0-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감사
0-(주)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 상임고문
0-6·25참전언론인회 회장(현재)
0-재외동포언론인협회 이사장,
재외동포언론인저널 발행인
0-전자랜드 상임고문(현재)

〈학력 및 경력〉

0-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과정 수료
0-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영자과정 수료
0-동아일보 입사(1965)
0-한국방송공사(KBS) 입사(1980)
0-KBS 안동방송국장
0-KBS 보도제작국장
0-KBS 제주방송총국장

0-KBS 스포츠국장
0-KBS 사회교육국장
0-KBS 해설위원
0-한양대 동문회관 웨딩프라자 회장
0-한국방송기자클럽 감사
0-대한언론인회 이사(2002)
0-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이사, 동 부회장
0-동우회 감사
0-대한언론인회 부회장
0-한양대 경영대 AMP총동문회 회장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은 오는 1월 22일(금)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 2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

한영섭(원로위원회 위원장·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

〈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위원〉

▶ 박기병후보 측

김무중(전 KBS 태백방송국장, 한국케이블TV 동대문 방송 사장)

김의수(전 내외경제 증권부장)

안병준(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한국기자협회회장)

▶ 이병대후보 측

심상대(전 KBS 순천방송국장)

이재권(전 동아일보 심의실장)

이향숙(전 코리아헤럴드경제 문화체육부장)

1면에서 이어집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통치를 포기해 온 것을 국민들은 계속 목격해 왔다. 국회 전체로 보면 권력포기와 책임포기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식물국회는 또 어떨까. 만장일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 다수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법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조차 박탈해 버렸다는 것이다. 여당후보를 뽑든 야당 후보를 뽑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열심히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자연히 소멸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느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고급월급쟁이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으로 명색이 정당이란 것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명예와 높은 연봉을 두고 싸우는 부족처럼 되어버렸다. 그 부족들 위에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초연한 경세가가 있다. 그도 식물인간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문제의식만 있으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아니나, 책임이라는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제도는 무시하고 동원과 선동에만 교육된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필칭통일을 떠들면서 북한 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될 리 없다. 국방예산은 남의 나라 일이다. 결산은 안중에 없고 주인 없는 눈먼 돈 쟁겨 지역구에 선심이나 쓰는 것이 고작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지닌 헌법재판소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체제에 가까워

앞에 지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통치포기며 권력포기다. 이를 두고 필자는 체제타락이라고 명명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없는 무정부체제라 하여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정치지망생들은 민주정치의 양적 도구인 표의 숫

자를 계산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유권자는 숫자의 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상실한 상태이다. 수단에 지나지 않는 수적 법칙의 결과 여하만 따져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능력 있는 리더나 정부는 정체성을 상실하며 무책임하고 아마추어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민주통치체제에 최악의 위협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시정의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일이다. 이 위협의 성격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좋은 권력’이라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고 ‘나쁜 권력’이라면 굳이 권력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체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투표에 의한 유권자의 선택은 민주체제를 더 민주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체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정치회복 또는 통치기능의 회복이 중심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고 식견 있는 인물들을 선택해야 하고, 이 임무를 국민이 지고 있다는 전제의 총선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낭만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맡겨만 둘 일은 아니다. 우선 선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넘쳐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에 불과하고 판단을 위한 지식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 지적한 대로 국민들은 모두가 정치를 거론하면서도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소수의 적극적 시민들이 투표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민주주의라 하여 굳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명분적 완벽주의가 아니고 현실적 경험주의이다. 그렇게 본다면, 의식 있는 언론과 적극적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집단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총선은 민주체제 운용의 학습단계를 끌어올려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적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선거이다. 이대로 가면 보이는 것은 바닥이고 그때가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 되고만다. [필자]

경제위기 타개 혁명적 발상 할때

2016과제 — 개혁 · 혁신만이 살길이다

다른 어느 분야도 그렇지만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론에 대해선 달리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심각하므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부터 아무런 망하거나 하겠느냐고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보는 시각, 경제위기설은 과장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숨겨 놓고 있다고 보는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것 같다.

97년 외환위기때 안이한 대응이 화 불러

작년 11월 2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교수, 전직 장관 등 지식인 1,000명을 대표해 7명의 지식인이 ‘미증유(未曾有)’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성명서와 기자회견발언에서 “그냥 위기가 아니다. 백척간두의 위기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6년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한 번 더 경제위기를 겪으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한 위기론의 대척점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는 주장도 있다. 즉 한국경제가 IMF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며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의 주장 뒤에는 노동개혁을 몰아치기 위한 술책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단언하지만 다시는 IMF환란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는다고도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잠시 올 수는 있으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건재하며 노동자의 노동의욕 상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법의 균형추가 무너지고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는 분열적 모습이 더욱 커다란 문제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시각이 더 우세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경제위기론의 양 극단적 시각을 보면서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의 조선침략 움직임을 살피러 갔다 돌아온 우리 선조들의 정반대 보고내용을 머리에 떠올린다.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절대 쳐들어 오지 못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어깃장이었는데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다.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니 걱정 없다는 관료들의 안이한 대응이 최대 환란을 불러왔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건 말할 것도 없다. 4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 발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이 새해 우리 경제를 강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으로 제조업 매출액이 1.6% 감소했고 수출도 작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격차가 2.6년으로 좁혀졌다고 하는데, 해외의 학자들은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이제부터 한국의 경쟁자는 인도라고 충고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잘 극복해 냈지만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분석도 전해진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3%대 성장’도 더는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지 오래다. 경제를 주도했던 조선·석유화학·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수출이 급락하고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자영업자, 일반 국민은 경제난을 호소하는데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너무나 안이하다.

그들도 알긴 알겠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으로만 서민경제 안정을 되뇌일 뿐 총선을 앞두고 계파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서두에서 소개했지만 위기론으로 보든, 과장론으로 보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디서도 기대되는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식적이거나 맨날 거기서 거기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 행정부—공공조직 대폭 손질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곽구조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300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진보정치인들 마저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참으로 웃기는 소리다. 특권도 대폭 축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대폭 감축 공무원 구조조정 깜짝 놀랄만큼 해야

모든 국가조직 민영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부는 지원만

공무원이 많아도 너무 많다. 기업구조조정만 해서는 안 되고 국회와 행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하되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 등 공공조직들도 물론 포함해야 한다.

관피아가 어떻고 철밥통이 어떻고 했는데 개선된 게 하나라도 있는가.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왜 해야 하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 일거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하되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단행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게 누구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중삼중(二重三重)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간섭에서 국민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히 모든 규제도 혁파하되 정부는 오로지 누가 무엇을 잘 못하나,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나,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간섭을 하는 대신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를 개혁 한다고 해왔지만 심하게 얘기해 시늉만 한 게 아닌가.

그러니 이제 혁명적 발상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조직은 민영화가 원칙이다. 예컨대 현재로선 경찰처럼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분야를 빼고는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 민영화 조직을 감시만 하면 된다. 우리 사회에는 발전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가 엄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치가 경제활성화에 절실함은 말할 것도 없다. 법치확립에 그 어떤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위로 올라 갈수록, 센 힘을 갖고 있는 계층일수록 법의 가혹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치에 그 어떤 예외도 두어선 안 된다. 종교와 노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없어야 한다.

결국은 돈이다.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적합하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여기에 국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경제관련법 제때 통과 일자리 만들어야

이렇게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과거의 어떤 대통령은 부정부패만 근절하면 경제가 저절로 잘 될 것처럼 힘주어 말한 걸 기억하고 있다.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이른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의 민간기업들은 이미 여기에 눈을 뜨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못한 세력이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가 오히려 저해 장애세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회에 낸 경제관련법은 아닌 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내용이 아니라면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

모든 걸 단언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이룩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내지 안정성장 시대는 가고 재래식 산업으로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보여진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흔들린다. 기존의 먹거리가 소진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노령화, 저출산, 1인 가족, 1백세 시대 도래 등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추세여서 산업구조도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금융 법률 의료 교육 관광 등 현대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4년이나 묶어 놓았으니 개탄스럽다는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모바일,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유전자 의료, 인공지능, 로봇, 드론(무인항공기) 등 IT와 의학공학 융합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이 눈앞에 깔려 있어 이들 산업을 누가 먼저 지배하느냐 하는 과업이 바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이 하고 정부와 정치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 데이터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성공방식을 답습한다면 한국사회위기는 더욱 빨리 올 것이며 심각해질 것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백지상태에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집단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직원들이어야 한다. 

ICT강국 창업지원이 돌파구다

2016과제 — 개혁 · 혁신만이 살길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2013년 6월 ‘창조경제’ 개념 정립으로 구체화했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하여 신사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3만 달러의 문턱에서 성장과 고용의 정체로 허덕이는 무기력한 경제의 타개책으로 나온 국가 비전이다.

그 상징이라고 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부문별로 특화되어 2014년 9월 대구(삼성)에서 15년 7월 인천(한진)까지 17개 시도에서 설립됐다. 대기업들이 연구 지역과 짝을 지어 5년간 총 2조원을 출연해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벌써 설립된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몇 십 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얼마의 시장이 개척됐다는 성공사례가 속속 발표되지만 신규 고용창출이 미미하여 성공의 속단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이들을 글로벌 기업(스케일업)으로 키운다는 미래는 더욱 불확실한 탓이다.

그간 우리의 비교우위였던 철강과 조선은 위기에 처했고 지금은 자동차와 전자, 세분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휴대폰과 현대·기아의 자동차 정도가 레드오션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00대 시가총액 기업에 겨우 3개가 들어있다. 이를 능가할 기업의 탄생은 결코 녹록치 않다.

지금 선진국들도 디지털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가 가져올 인간생활과 산업, 서비스의 혁신적 연구에 몰두 중이다. ICT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을 내걸고 혁신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포장만 달랐지 ICT 혁신을 중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며 정보통신부를 창설, 인터넷대국 건설에 초석을 놓았고 세계 첫 CDMA에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 육성으로 코스닥 광풍과 거품을 동시에 몰고 왔고 심형래를 1호로 하는 신지식인 3,885명을 발굴 했다. 정치 소라는 비판도 받지만 인재중시는 틀림없었다. 늘 마우스를 쥔 모습으로 우리들이 기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 주축의 신성장 동력을 내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로봇 등 뉴IT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과 녹색 성장을 내걸었지만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른 ICT의 주무 부처인 정통부를 없앴 우를 범했다.

벤처정신 학교에서 교육해야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확고한 미래 비전으로 무장돼야 한다. 그런데 창조경제를 제시한 지금 정부도 결과가 더딘 ICT보다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손쉬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감이 있다. 2015년 3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5.6%, 제조업은 고작 0.1%였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는 비 ICT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조금 높였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수십 % 오르는 미친 전세로 내몬 요인도 되었다. 국회 예결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신규 연구개발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해 창조경제 ICT가 무색하게 했다. 이렇듯 거창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 예금예대 단말기 유통에까지 매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기업주도 창의 발휘케 창업기업인 우대 각종 규제 풀어야

행정 · 사법 · 입법부 모두가 변해야 창조경제 열매 가능

달리고 있다.

규제를 안 하려고 정부 지원 대신 재벌의 돈줄로 창업생태계를 만들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의 보증서는 아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창업 기업인을 우대하고 간섭 않는 기업 주도로 창의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왜 미래를 짊어질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창업보다 기득권을 쫓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창업은 성공의 확률이 낮다. 기업가보다 노조를 우대하는 반기업 정서를 교과서에서 지우며 리스크를 안고 꿈과 끼로 도전하는 벤처 정신을 교실에서부터 찬양하고 교육해야 유능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미래의 먹거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오바마가 찬양하는 한국의 교육열은 입시열기로 탕진되고 있다. 교육방송은 수능 강화 보다 창업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표를 노리는 ‘실업수당’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젊은이에게 ‘창업수당’을 줘야 한다.

규제 해제로 창의 복돋게 국회 바뀌어야

5세대 통신망이 도입되는 ICT사회는 ‘사물 인터넷(IoT)’시대다.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듯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센서 칩을 달고 통신하는 시대가 열린다. 구글과 아우디, 도요타 등의 자율주행 자동차(스마트 카) 도로 실험, 아마존의 드론 택배 실험 외에 앞으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빅 데이터 등으로 어떤 새로운 지능형 융합 서비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들이 국내에 뿌리내리고 외국에 진출하려면 온갖 규제가 풀려야 한다.

일본이 지바시를 3년 안에 세계 최초의 드론(소형 무인비행기) 택배 상용화 도시로 만들려고 무규제의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것처럼 거침없는 선진국들의 탈규제를 본받아야 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항공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서비산업법 등 기업의 창의적, 선도적 서비스를 막는 온갖 법률을 고쳐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도 기업이 택하게 해야 한다. 혁신도시 같은 기업 배급식 품도에서 창의는 솟아나기 어렵다. 그러나 무능 저질 국회와 권력화한 노총이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새바람을 몰고 올 법안 하나하나에 올가미를 씌우고 나라의 앞길을 방해하는 한 창조경제를 통한 선진국 진입은 꿈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게도 ICT강국 실감케

세계 시장의 외국인 소비자들에게도 ICT 강국다운 편리한 쇼핑을 보장해야 한다. 드라마에 나온 코트를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사려는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없어 못 샀다고 해 큰 논란이 일었다. 미국 아마존은 신용카드만으로 세계를 상대로 편리하게 물품을 팔아 세계 굴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섰고 워싱턴포스트까지 사들였다. 소비자를 위한 ICT 서비스 혁신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은 물론이고 지원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가 변해야 한다. 700원짜리 대법원 인터넷등기열람은 물권의 변동도 아닌데 열람 절차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정보화 강국답게 전국으로 퍼지는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처럼 삶의 질 향상이 피부에 와 닿을 때 ICT와 접목한 창조경제는 더 의미를 지닐 것이다. [4]

국태민안(國泰民安) 기원

2016년 丙申年 ‘뿔간 원숭이’의 새 해, 국태민안(國泰民安) 만사여의(萬事如意) 기원... 국가는 국격(國格)을 높이고, 정치는 백성을 섬기며, 국민은 희망과 행복이 커가는 福된 한 해 이루소서!

광화문에서 영토 싸움인가?

서울시에서 설립 불허 탓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도 못 세우는 나라. 보훈처와 서울시청이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고 영토 싸움하는 것 같아 불미스럽고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세우기로 했던 업무협약까지 휴지조각이 된다면 어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100자 발언개'

사상 최악의 '사망국회'

제19대 국회 총점은 ‘사상 최악’! 말쟁이들 궤변만 남발하면서, ‘식물국회’를 넘어 ‘사망국회’ 오명까지 누렸으니 의원들이여, 만민의 선량으로 국해(國害)한 죄 통감하면서 세비 토해내야 옳지 않는가?

새 내각에 거는 기대

최근 상황이 외환위기 당사와 비슷하다는 說 說

說 속에 입각(入閣)한 경제 및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새 수장들, 경제난국 잘 다스리고 총선 내각으로 역할과 기능 다 해주기를.

가계 자금줄 바짝 죄겠다고?

통계 작성 이후 가계부채 역대 최고라고? 가구당 빚은 3년새 17% 증가하면서 자산 증가를 보다 2배 앞질렀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은행들도 가계로 가는 자금줄을

작고 강한 精銳정부라야 미래 있다

2016과제 — 개혁 · 혁신만이 살길이다

소수정예(少數精銳),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이 네 음절의 의미를 비틀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줄여 소수(少數)로 만들면 모두가 그 분야 정예(精銳)가 된다’는 뜻이라고 둘러대면 다들 무척 황당해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예 인재를 찾아온 정부 조직 인사혁신처에 실은 ‘혁신’이 없다고 하면 인사혁신처 안팎 모두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어찌랴.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여간 어렵지 않은데다 그 일 맡아 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얼마간 지나고 보면 적어진 그 인원이 원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게 세상사의 드물잖은 경험인 것을.

정부 인사혁신처에 ‘혁신’ 찾아볼 수 없어

인사혁신처 얘기도 그렇다. 국무총리 산하의 그 부처를 영어로 옮겨 ‘MPM;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라고 한다. 되돌기자면 ‘인사처’가 그럴듯할 것이다. 원래 이름에서 ‘혁, 신’ 두 음절이 사라진다. 그렇다. 지난 9월 17일자로 정부 조직의 영어 명칭을 재정리할 때도 남겨둔 인사혁신처의 그 ‘혁신’은 관형사다. 시대의 간절한 요구를 함축한다.

인사혁신처의 근작(近作)인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은 왜 공직 사회 개혁이 시급한지를 두루 말해준다. 12월 7일 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맨 첫 문장부터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그런 자찬도 좀 미진했는지 마지막 한 문단을 다시 이근면 처장에 할애해 “(이 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이제서야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가르기로는 했는가 싶어 못내 씁쓰레하다. 민간에선 오래 전부터 그런 상벌이 일상이고 상식이다. 더군다나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다잡은 이후 4개월이나 지나 성안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한동안 더 다듬어 새해 성과중심 인사체계와 연계한다고 했다. 더더도 너무 더디다. 그나마 이번 개편의 진정한 의미가 공직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는 신호음, 비유컨대 ‘철밥통 깨기’ 내지 ‘잔디와 잡초의 구분’이라는 사실로 위안을 삼을밖에.

박 대통령의 ‘정부 개혁’ 슬로건은 2012년 대선 이후 몇 차례 변곡점을 거쳐왔다. 대선 당시엔 일방적 정부 1.0은 말할 것 없고, 국민과 교감하는 쌍방향 정부 2.0도 넘어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지향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공약했다. 이후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2013.2.25. 취임사)로 매만져지다가 했더니 통한의 4.16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사안일’ (2014.5.19. 대국민 담화)로 음색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한시절의 유행어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처럼 공직의 적응 본능은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다. 공직문화 일신이라는 찬란한 수사 밑으로 공직 규모가 확대재산을 지속해 2014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이 101만310명에 이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공무원 인사체계 개편 정부개혁 속도 늦어 행정부만 100만명선

옥상옥 각종 위원회 규제위한 규제 과감한 정리 필요

르러 사상 처음으로 100만 기록선을 넘어섰다. 행정부만으로 좁히더라도 98만5,515명으로, 역시 100만 명 선이다.

물론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공무원 정원만으로 갈라 세울 일은 못된다. 그래도 사상 초유의 100만 공무원과 ‘작은 정부’가 조응할 리 없다. 정부위원회만 해도 지난 6월 말 현재 549개 위원회 가운데 17%인 96개 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할 일이 없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3%, 72개 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만 열었다고 한다. 이후 6개월 동안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으랴. 그 많은 공무원이 그리 술한 위원회를 둘러리 세워 권한을 늘리는 정부, 그래서 규제가 늘어나는 정부가 곧 ‘큰 정부’다.

박 대통령은 드러내놓고 ‘큰 정부’의 야욕을 타박하지도, ‘작은 정부’의 꿈을 그리지도 않았다. 지난해 3월 10일 “쓸데 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암덩어리”라고 한 비유에 미뤄 큰 정부를 통해 맑은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길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공무원 5.5명당 규제 1건씩 늘어나

정부가 커지다 보면 일을 위해 일을 만드는 것, 규제를 위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 공직의 나날이다, 일상이다, 그 모든 것에 앞서 공직의 생리다. 박 대통령이 ‘원수, 암’ 비유를 복창해 규제 개혁을 역설하지만 그 역시 아무래도 ‘위의 정책’일 뿐, ‘밑의 대책’은 으레 종전 규제를 간추리면서 없던 규제는 재 설계하기 십상이다. 2009~2013년 간 등록 규제가 4,210건 증가하는 사이에 공무원은 2만3,185명 늘어나, 공무원 5.5명 당 규제가 1건씩 늘어났다는 상관관계 연구가 공직사회의 그런 본능을 구체적 수치로 다시 말해준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또 술한 위원회가 기다린다면 그들 때문에 경제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임은 물론, 부처 간의 조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기대 하기 어려워진다. 파킨슨은 살아 있다, 그의 법칙은 그냥 유효한 게 아니다. 여전히 막강하다.

작은 정부로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자주 들린다. 그러나 그 역시 정책 아닌 대책 차원에서 간을 보는 것이기 십상이다. 작은 정부의 예상되는 허점은 강한 정부가 되어 커버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 아닌 진흥업무, 지시 아닌 유도 업무,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두고 민간과 선의의 경쟁을 펴는 정부, 그런 자신감을 주실러가는 게 바람직한 정부의 하루하루 일상이다. 미래를 직시하고 미리 산업구조를 재편해 선제 대응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지, 그 밀도에 걸맞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기업의 탐험(探險)정신을 유기적으로 맞물려 선순환시키는 작고 강한 소수정예 정부... 그렇다, ‘소수정예’가 미래 정부의 이름이라야 한다.

김동춘 저 ‘대한민국은 왜? 1945~2015’ (사계절·2015.11)의 한 대목을 빌리면, 구한말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 “관리들의 악행만 없어진다면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 생업에서 생긴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근면하게 될 민족, 행정적인 계기만 보여주면 무서운 자발성을 발휘할 민족...”으로 기록했다. 아스라이 세기 전 비숍 여사의 안목과 통찰을 다시 빌려 정부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진로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가 선망해온 한국경제 그 성장의 신화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작고 강한 정예 정부가 나서 거국적 열정에 재점화해야 한다. [국문]

'100자 발언대'

바짝 조이겠다니 국민들의 한숨은 더 커질 판.

한국 신용도 Aa2로 상향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렸다. 무디스 평가 등급 21 단계 중 3번째로 높은 것, ‘구조개혁 후퇴하면 다시 하향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니 명심하기를.

유한준(편집위원)

‘소요죄’와 한상균

검찰, 한상균에 형법 제115조 (소요죄)적용 검토. ‘소요죄’의 혐의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 마치 한상균의 등장을 대비한 법률 갈네.

도를 넘은 막말시위

‘박근혜를 처단하라’ 3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나붙은 구호다. 현직 대통령을 ‘처형하라’니, 박 대통령

이 무슨 대역(大逆)범인이라도 되는가.

그게 민주주의이고, 언론자유인가. ‘문화제’란 구호가 무색한 막말 + 쌍말 시위에 박수칠 시민들 몇일까. 1988년에 폐기된 ‘국가원수모독죄’가 생각난다.

문재인이 문제

문재인, 안철수와 헤어지고 정동영 교섭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고. 大魚 놓치고 잔챙이(?) 낚으려 다니는 한심한 낚시꾼, ‘삼고초려’라도 해보실 걸 그랬나. 문제는 문재인이 리더십이 문제.

지용우(논설고문)

출산 장려정책 立案과정부터 잘못

2016과제 — 개혁 · 혁신만이 살길이다

얼마 전 내년부터 5년 동안 실시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10년 간 1, 2차 기본계획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기미보다는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썼다고 한다.

지난 1, 2차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지금까지 보육 환경 개선을 저출산 정책의 중심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혼인연령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혼인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계획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말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뭐가 문제인 것인가?

200개 넘는 정책 나열 형식적 의견수렴

필자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조야(粗野)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저출산 현상과 같이 오늘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의 성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연구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 2차는 물론이고 이번 3차 기본계획이 모두 정부가 한 곳의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준비한 2백 개가 넘는 정책들을 미리 나열해놓고, 교수 및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왔다. 물론 그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책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다.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의 위치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주 해외사례를 찾게 되고, 선진국들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반등한 나라의 정책을 베끼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나라들이 바로 스웨덴과 프랑스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젊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들이다. 즉 역사나 복지환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구학적인 특성에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 국가들인 것이다. 결국 국책연구기관은 전문인력의 부족 속에서도 정부가 요구한 정책발굴을 해야 하고, 그것도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에 의존하거나 임신, 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모든 정책들을 나열하는 수준의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복지제도가 생겨난 지 이제 15년도 채 되지 않고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의 일하는 문화 자체가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특별기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인구학

정부 3차기본계획 상황다른

외국사례 베껴

저출산현상 연구 국책사업 실시하고 인구전문인력 키워야

정말로 정부가 우리의 문화와 사회의 맥락에 맞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바로 위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국책연구사업은 위에서 적시한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와 그 성격자체가 다르다. 혼인과 출산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보다 긴 호흡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국책연구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수많은 국책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아마도 외부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5년마다 돌아오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못 맞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의 마련과 5년의 주기를 맞추는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젊은이 스스로 출산의욕 갖게 환경조성을

둘째로 정부 내부에 출산을 포함한 인구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인구정책실이 있고 이곳에서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관련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만일 이미 자리를 잡고 진행만 되는 정책이라면 굳이 전문인력을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부 조직 내에 인구현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인구정책실에 이러한

인력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을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게 되고 국책연구기관은 연구보다 인구정책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되어 버렸다.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인구정책실의 인적자원이 정말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야기대로 정부의 정책만으로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은 금모으기처럼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환경 조성의 중심에 정부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과 조직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제3기 기본계획에 연연하지 말고 개혁수준의 성찰을 통해 새로운 판을 깔고 다시 시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 [필자]

'100자 발언대'

선거때면 도지는 노인편하 막말

선거 때만 도지는 야당의원들의 노인편하발언이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 정동영 전 의원이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한 이래 당시 62살의 설 훈 의원이 “60세 넘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막말, 김용민씨는 “노인들 시청 못오게 에스컬레이터 없애버리면 돼”라고 했다. 그런데 이젠 문재인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

책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한다. 그러니 바깥아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없는 것”이라 했다. 작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흘린 젊은 날의 소중한 땀방울과 살신성인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을 외면하는 야당은 도대체 국적이 어딘가 묻고 싶다.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大道無門

“세월 탓인가 사람 탓인가”

거산(巨山)의 ‘대도무문(大道無門)’과 여의도(汝矣島)의 ‘대도무문(大盜無門)’ 발음은 같은데—세월 탓인가 사람 탓인가?

김한봉(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테러 뉴노멀 시대 IS대비책 절실

2016과제 — 개혁 · 혁신만이 살길이다

한 달여 만에 IS테러로 500여명 숨져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집트와 파리, 터키 앙카라, 베이루트, 아프리카 말리 등 3개 대륙 4개 지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연쇄 국제테러로 500여명이 숨졌다. 10월 31일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여객기내 설치된 폭탄이 터져 탑승자 224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반인륜적 연쇄 테러범행들은 모두 이슬람극단주의 IS 또는 IS연계테러 단체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번 연쇄테러는 IS테러 또는 IS연계테러단체들의 일대 전환점이자 글로벌 테러로 포위된 개인안보의 뉴노멀(new normal)시대(新狀態)를 말해준다. 모든 나라들이 IS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테러의 뉴노멀시대로 하루도 테러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위험이 낡아진 테러리즘이 일상사가 돼 버렸다. 미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지구상에서 13463건의 테러공격이 있었고 매일 1,122건, 매일 37건, 40분마다 1건씩의 테러공격이 있었다. 거기다 IS는 언론인과 종교인, 자원봉사자 가릴 것 없이 포로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수함으로써 전 세계를 공포로 사로잡았다.

IS는 왜 생겼나

IS는 수니파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지하디스트 극단주의 테러 세력으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확대 변형되면서 생겨난 중동의 테러조직이다. 이라크 전쟁 후 안정화-재건 과정에서 정권을 잡은 시아파 정부와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의 제도와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제거했다. 이에 반발한 후세인 시절의 바아트 당 집권 잔존 관료 세력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합해 IS(또는 ISIS)의 핵심 지도부를 조직했다. IS는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정권과 그에 저항하는 반군 사이의 벌어진 내전을 틈타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 2014년 시리아 라카(Raqqah)를 수도로 삼아 이슬람 신정국가인 ‘칼리프 국가’를 선언했다.

칼리프 국가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7세기에 세웠던 순수한 초기 이슬람 공동체를 가리킨다. IS는 이슬람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조하지 않으면 타 종교, 타 종파는 물론 같은 수니파라도 무차별적으로 처형하고 있다. IS는 알카에다가 절연을 선언했을 정도로 극악무도하다.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동부 인구 1000만명의 거주지역을 장악, 무자비한 테러를 브랜드로 교조적 이슬람 ‘국가’로 행세하고 있다. IS의 특징과 위험의 중대성은 초거대 테러리스트 단체에다 그 운영이 국가형태를 갖췄으며 이슬람 신정국가형성을 위한 혁명적 정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IS는 점령지역의 원유(월 4천만 달러 수입)와 유물을 밀매하고, 인질의 몸값을 받아내며, 주민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다른 테러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이 막강하다. 온라인을 통한 전투원 모집에도 능숙하다. 조직원의 국적이 90여 나라에 달할 만큼 다국적, 다인종, 다언어적인 초국가 테러 전문 단체로 도약했으며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이 최소 1만 5천 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3,000명이 자살 테러예비군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지하디스트들(순교자)은 공포의 대상이다. IS는 젊은이들에게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고취함으로써 고통스런 이승 보다 저승의 ‘영생복락’을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던지도록 감언이설로 유인하고 있다.

IS를 표방하는 테러단체는 3개 그룹이다. 제1그룹이 칼리프 국가를 선포한 대구모 테러단체며 그 아래 세력은 약한 테러단체들이 프랜차이즈처럼 구조적으로 뒤



여영무

- 본회 논설위원
- 남북전략 연구소장
- 국제법학 박사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IS 62개 공격대상 한국도 열거 연계테러 배제못해

북한도 위협요인 국회무인 테러방지법 신속히 제정해야

따르고 있다. 리비아의 안사르 알 샤리아(Ansar al-Sharia)와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이 IS의 지부임을 선언했고 IS의 이집트 지부를 자처하는 윌라야트 알 시나(Wilayat al-Sina)는 지난해 자신들이 러시아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 탈레반(Pakistani Taliban)과 인도네시아의 자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도 IS 지부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슬람계 ‘외로운 늑대들’ 글로벌테러공포 급속 확산

제3그룹은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LA, 캐나다, 호주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후 IS와의 연계성과 충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그룹은 주로 무슬림 이민자들이다. 서구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작년 11월 파리테러 때처럼 주변부를 떠돌던 부적을 개인이나 조직 폭력범들로서 이들은 IS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돌아와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알카에다와 성전(지하드)헤게머니 쟁탈전을 벌이는 IS가 서방국에서 대형테러를 경쟁적으로 감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테러공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격퇴작전 국가간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

IS는 수니파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미국과 러시아, 터키와 시리아, 중국과 한국 등에게 공격 1호이지만 격퇴전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반 IS 국제연합전선의 주요 참가국 간 아사드 정권의 거취, 이란의 부상에 대한 경계 정도, 쿠르드족 지원여부, 시리아 난민 위기를 둘러싼 이해 대립으로 통합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65개 국제연합전선은 IS에 공습만 하고 있다. 그나마 참여국 간 이해대립으로 타격 대상이 달라 공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반 아사드 반군을 공습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다수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상군파병을 거부하고 공습만을 고집하고 있어 국제적 격퇴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IS의 홍보책자 다비크(Dabiq)가 62개국 공격대상중에 한국도 열거하고 있어 반세기동안 대남테러에 희생되어온 우리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에도 무슬림 등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회 부적응 계층이 있어 이들 중 IS연계 테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각종테러로 우리를 괴롭혀온 북한도 테러리즘 기법과 전략전술면에서는 최첨단을 걸어왔다. IS의 참수도 KAL기 폭파에서 영감을 얻어 잔혹성을 업그레이드 한 테러형태다. 1988년 12월 리비아아의 폭군 카다피의 판암 여객기 공중폭파(270명 사망)도 1987년 김정일의 KAL기 폭파(115명 사망)테러를 모방한 것이었다.

북한도 잠재적 테러세력

테러리스트들은 직간접으로 테러기술과 잔혹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따라 배워왔다. 북한은 냉전시기 북한 내 10개 테러리스트 훈련소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모집해와 훈련시킴으로써 테러를 전파해왔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외부 테러에 취약한데다 핵을 가진 북으로부터도 부단한 테러위협아래 놓여있다. 지금은 우리도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가 간 정보교류와 자금세탁방지, 감청 등 긴밀한 국제협력으로 물샐틈없는 대비책을 갖춰야 할 때다. 이번에는야말로 여야정치인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가 돼서는 안되겠다. [ㄹ]

관훈 클럽 63대 총무 이강덕씨 선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12월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이강덕 KBS 디지털뉴스국장(사진)을 제63대 총무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도운 서울신문 부국장 겸 정치부장,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이 신임 총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BS에 입사해 정치외교부장, 해설위원, 위성탄지국장 등을 지냈다.

언론가 소식

기자협회장에 정규성씨 당선



제45대 한국기자협회장에 정규성 대구일보 부국장(50·사진)이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정규성 후보가 유효투표 4,522표 중 3,821표(지지율 84.5%)의 찬성으로 제45대 한국기자협회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1992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구경북기자협회장,기자협회 부회장,수석 부회장 등 협회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대구일보 서울지사 정치부 부국장 대우로 재직 중이다.

제19회 一耕言論賞 시상

윤임술 본회 원로 회우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경언론문화재단이 12월 9일 프

레스센터에서 제19회 일경 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일경언론상 대상(상금 1,000만원)은 광주일보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취재팀에 돌아갔다. 장려상은 전주 MBC 보도국 유훈기자(육식의 반란, 3-팝콘치킨의 고백)와 KNN 이근호·정한석 PD(다큐멘터리 3부작 ‘방주의 신, 선왕’)가 받았다. 일경언론상(一耕言論賞)은 국제신보 창립자인 고 일경(一耕) 김형두 선생을 기리고 지방언론의 육성발전을 위해 일경언론문화재단이 1997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2016 예산안 ‘국회의원 나눠먹기’ 표본

새해 정부 예산안은 기업의 신년도 사업계획서나 다름이 없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계획서를 새해가 되기 전에 짜지 못하면 그 기업은 부실한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국회 여당과 야당이 예산안을 각종 법률안과 연계시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 국회는 부실한 국회가 아닐 수 없다. 19대 국회 여야는 예산안을 각종 법률안과 연계시켜 다툼을 하는 바람에 법정 심의시한을 넘겼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밀실 거래와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했다.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부실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386조 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감소한 386조 3997억 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여야 실세가 예산 증액 앞장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로 편성하는 데는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앞장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영도 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충 사업비를 정부안 75억 원보다 50억 원 더 늘렸다. 부산 해사고 시설 유지비도 정부안 50억 원 보다 22억 원 더 증액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기도 일대 예산 늘리기에 힘썼다. 서해안 복전전철 건설비를 정부안 1837억 원보다 500억 원이나 늘렸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문산~집현 국도 건설, 문산~도라산 전철사업비 등으로 15억 원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청주공항 평행유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새누리당 정우택 정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 같은 당 변재일 의원(국도위) 등이 앞장섰다. 야당도 예산 챙기는데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안 1342억 원보다 300억 원 더 증액됐다.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로 50억 원을 신설, 증액하는 데 성공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로 정부안 550억 원에 250억 원을 더 증액하는 데 앞장섰다. 예결위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비를 늘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주무부처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진짜 실세’들은 국회 심사 과정이 아닌 정부원안에 이미 많은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SOC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5593억 원(대구 3064억 원, 경북 2529억 원)이 TK에 증액됐다. 올해 기재부가 예산을 뺏박하게 짜면서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은 경남 626억 원, 충남 1663억 원, 전남 143억 원, 전북 816억 원이 오히려 깎였는데도 TK 예산만 대폭 늘어났다.

이미 기재부에서 대폭 증액된 상태로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예산주무부처 수장등 정부원안에 끼워넣고 국회심사서 또 증액

지역구와 무관한 안전예산은 마구깎아 총선 바른선택 기대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TK의 SOC 예산은 또 증액됐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에는 3639억 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 300억 원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영천~연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조기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안(733억8200만원)보다 175억 원이 증액됐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20억 원이 신규 배정됐고, 경산4산단 진입도로사업도 9억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없거나 늘어난 사업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비 188억 원짜리 공사는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 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 횡단 구간) 사업비 20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IC개설 35억 원, 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 사업비 30억 원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튀어나온 예산이다.

영천~연양 고속도로 건설비는 정부안(733억 원)보다 175억 원이 늘어났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도 정부안(626억 원)에 173억 원이 증가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는 정부안(550억 원)에 250억 원이 추가로 얹혀졌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비는 정부안보다 2배 늘어난 500억 원이 됐다. 신설된 예산 가운데는 2~3억 원짜리 사업도 많다. SOC 예산은 특성상 일단 손을 대면

오늘의 니대르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의원들은 총선 등을 겨냥, 일단 신규 사업을 따내는 데 온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2~3억 짜리 예산이라도 확보하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몇 억 원의 용역비 정도라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선 타당성 조사라도 시작하면 다음 해부터는 계속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상임위·예결위 거치면서 넣고 빼기

SOC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칼자루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쥐고 있다. 이 심사에는 정작 SOC 사업을 편성한 국토부도 배제된다.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넣고 빼기를 한다.

사실상 밀실작업이 이뤄지면서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이 해당 부처도 모르는 사이에 ‘쪽지예산’ 형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같은 SOC예산이라도 ‘안전예산’, 일반 사업비는 국회의원 지역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희생됐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은 타당성이 적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증액, 또는 신설했다. 반면에 감액해도 지역구 반발이 없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은 일부러 골라내 깎았다.

특정 지역 사업의 성격이 아닌 철도안전관리 예산의 경우 무려 403억 원이나 잘려 나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안전관리나 시설개량,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등 지역구 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의 경우는 칼질 대상이 됐다. 도로유지 보수비도 200억 원이나 삭감됐다. 치수사업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도 350억 원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SOC 안전 관련 예산 7건, 1047억 원이 날아갔다.

선거혁명 일어나야

올해처럼 가뭄이 심할 때나 철도사고가 나면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던 여야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안전관리예산’은 마구 잘라냈다. 잘라내도 국민이 모를 것 같은 예산을 잘도 찾아내 깎아 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짰던 것인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그 소임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열중한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다.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 삭감해서 386조 3997억 원으로 결정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나 예산 관련 실세 정치인들이 ‘나눠 먹기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알뜰한 예산안이 탄생했을 것이

다. 19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지 않는 국회’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야당과 진지한 협상을 포기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이 본업인양 착각하기 일쑤였다.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지 않거나 ‘나눠 먹기식’ 예산을 짰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국회개혁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는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투쟁에만 앞장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과감히 줄이는 일대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지 여야 간 힘겨루기에 앞장 설 수 있는 ‘투사’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생긴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위대한 각성’을 통해서 20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한 의원만이 선출되는 일대 선거혁명이 일어나기 바란다. [국회]

‘광화문 태극기’ 막은 서울시의 궤변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이래 한 시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 왜 그럴까. 좋게 보면 의욕이 너무 지나친 때문이고, 나쁘게 평가하면 별이는 일들의 상당부분이 ‘좌 클릭’으로 기울어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중도적 시민들로부터도 역풍을 맞는 까닭이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 보훈처가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박 시장의 반대로 무산된 일만 해도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우선 서울시가 태극기 게양대설치를 반대한 이유부터가 사리에 닿지 않는 궤변이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는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며,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언제 태극기설치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니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무슨 흉물이라도 되는가. 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고작 사방 2~3m면 족한 게양대가 방해가 된다면 그럼 지금도 광화문광장을 점거중인 세월호 천막촌은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기념비적인 계획을 서울시장 이 앞장서 막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크나큰 실수다. 설치장소가 어쨌고 지방자치제 관할소관 여부를 떠나서 대의명분과 절대다수 국민여론의 지지 (87.3%, 리서치앤리서치 지난 10월 조사)를 외면한 독단적인 처사다. 그런 국민의 여망에 서울시가 찬 물을 끼얹은 셈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11조2항(깃대의 설치방법)에는 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있다.

아무튼 서울시가 지방자치제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것처럼 이율배반적이고 평형 감각을 상실한 행정편의주의로만 나가면 국민여론과는 점점 거리가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언론인회 부회장

광복70주년 기념 찬물 국민여론 외면 대의명분도 없어

‘좌파시장 박원순’ 북한관련 발언 오해사기 충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동시에 서울시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도 ‘좌파시장’이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된 셈이다.

사실 박 시장은 그동안 그런 오해를 살만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창출해 낸 실적이 있다. 예를 들면 8·15 광복절을 기념해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것이라든지, 평양시와 서울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자는 발상 등등.

어떤 의미에선 남북화해를 위한 전향적이고도 통 큰 발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현실이 어디 그렇게 태평세월인가. 북한은 지금도 변함 없이 틈만 있으면 대남 무력도발을 위협하며 핵폭탄을 비롯한 온갖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중인데 우리만 한가롭게 자매결연 운운하는 것은 상대를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낭만적인 자세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들에게 또 다른 오판의 기회를 주자는 인적논리나 다름없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그것도 다른 인사가 제안을 했다면 몰라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 들 어떠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전력이 있는 박 시장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종북인사’는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공식이다. 탄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서울시장에 되기 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한 말들, 즉 ‘박원순 어록’이 박원순사상을 극명하게 실증한다. 그중 몇 가지만 추린다.

“북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천안함 사태를 믿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유리한 시기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다”(2009년 9월 14일·미국상원 초청에서)

“국제사회에 뒤통이 나서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1991년 5월 31일)등등. [출처]



송년모임 경향모범사원상 시상

경향신문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1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제5회 경향모범사원상도 시상했다.(사진)



신임 회장에 조강한 본회 회우

동아일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2015 동우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사진)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송년 모임에서 조강한 본회 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송년의 밤 본사 임원진등 참석

서울신문 12월 9일 오후 6시 서울신문 본사(한국프레스센터)

사우회 소식

터)에서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등 본사 임원진과 많은 서울신문 전직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사진)

송년모임 임덕규 회우 특강

신아일보 지난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정동 이파리아노 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을 가졌다. 김종하 전 국회부의장(본회 회우) 등 60여명의 사우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임덕규(디플로머시 회장) 본회 회우는 ‘내가 만난 외국 정상들’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11, 12월 회보 발행

연우회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연합임포맥스 출신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덕성)는 지난 12월 15일 11,12월 회보를 발행했다. 사랑의 나눔 위한 모금 운동 전개 소식(2면)과 해마다 열기 뜨거워지는 연우회 ‘만남의 날’ 소식(3면), 이민우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의 ‘세계지명사전의 추억(3면)’ 등이 실렸다.

사우한마당 모임 정례화

중앙매스컴 지난 12월 1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회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한마당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다. 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장식한 중앙매스컴 회보 205호(11월 30일자)엔 김사랑 이목 회 중앙그린회 동부회 J-FM J-포토

Young-77회 큐사랑 등 동우회모임들이 다채롭게 소개돼 눈길을 끈다



300여명 참석 송년의 밤

조선일보 ‘2015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6일 저녁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다.(사진) 전·현직 조선일보 사우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89년 출범한 조우회는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았다.

신년도 사업계획 확정

한국경제 지난 12월 23일 오전 11시 2015년 결산이사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역사문화탐방 등 각종 행사 결과를 논의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새해 사업계획으로는 본사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사우회보발행 활성화·회비 미납회우에대한 경조비 지급 중단 등이 결의됐다. 또한 2016년 1월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한두달 늦추기로 했다.

사우회보 165호 발행

KBS 12월 17일 오후 5시 KBS 본관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참석회우에게 KBS가 제공한 2016년 수첩과 기념품이 전달 됐다.

KBS사우회는 또 지난 12월 1일자로 사우회보 164호를 발행했다. 원로회우 초청 행사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해 나온 이번 호는 조근제 회우의 귀농이야기(4면), 강기회 소식(6면)등이 실렸다.



송년회 겸 정기총회 100여명 참석

헤럴드 지난 12월 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1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가졌다.(사진) 역대 송년회 모임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원로회원들은 재직 시의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한껏 향수에 젖기도 했다.



송년회·출판기념 오찬모임

한국일보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의 밤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한국일보 사우회는 또한 12월 29일 정오 서울 뉴서울호텔 2층 한 음식점에서 흥원기 본회 명예회장, 박실 회우, 이동복 사우의 저서 출판을 축하하는 오찬모임을 가졌다.

퇴직언론인은 숨어있는 국가자산

첫 실태조사 평가

기획에서부터 1년여에 걸친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사업이 완결. 지난해 12월 28일에 350페이지에 걸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언론 100년의 방대한 자료 소장처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연구 학자인 정진석 박사는 이 퇴직언론인 실태조사가 “우리 언론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히고 “퇴직언론인은 국가사회의 큰 자산이라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실태조사 작업에 자문과 지도를 했던 강원대학교 김세은 교수는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분석, 평가한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 동안 언론인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 직업 환경의 변화와 언론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은 물론이고, 그들이 ‘겉으로’는’ 똑똑하고 당차보여도

정작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세상물정을 잘 모르며 언론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퇴직 언론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도 정부의 지원대상에 퇴직 언론인을 포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언론사는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기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퇴직을 위한 소프트랜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령인구에 관한 2015년 조사(Pensions at a Glance 2015)’에서

한국남성이 구직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실질 은퇴연령’은 72.9세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까지

일을 하면서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은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49.6%이다.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러니까 실질 은퇴연령이 가장 늦는 것은 여생을 즐기는 기간이 가장 짧다는 의미 이전에 그렇게 배에 할 수 없다는 실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퇴직언론인의 실태를 이 OECD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의 연금제도 밖에서 살아온 퇴직언론인에게 “이들의 복지문제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정진석 박사의 결론처럼 현역 언론기관이나 정책기관의 연구, 배려 테마이다.

‘대한언론’ 12월호에 요약보고서가 보도되었던 ‘퇴직언론인 실태 보고서’는 관계 각 기관 단체에 배포되어 연구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회우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배포된다. [4]

한 사회의 언론을 보려면 언론인을 봐야 한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고 사주나 발행인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언론을 결정하는 것은 실행 주체, 즉 기자인 것이다. 무척 단순한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라 그런지, 언론인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서인지, 언론인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폴리널리스트’에 대해 자료를 모으다가 기업으로 옮겨가는 언론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폴리널리스트와는 달리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않으며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폴리널리스트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윤리적 질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주변에서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 알게 되었다.

왜 언론인이었던 사람이 정치인이거나 회사원이 되어야 하는가? 한 번 언론인은 영원한 언론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규범적 질문은 다분히 언론인이 처한 상황과 연결되어야 ‘윤리적’ 차원을 넘어 현실성을 갖게 된다.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언론의 위기와 불황은 기자정신의 약화라는 심증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언론인의 직업 변동 혹은 불안정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언론에 대한 비전의 부재,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이직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현직을 떠난 퇴직 언론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번에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퇴직 언론인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동안 언론인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 직업 환경의 변화와 언론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은 물론이고, 그들이 ‘

겉으로’는’ 똑똑하고 당차보여도 정작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세상물정을 잘 모르며 언론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퇴직 언론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 활용하

조사를 마치고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지차다.

퇴직 이후 다른 곳에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오라는 곳은 없고 용돈이라도 벌 만한 곳은 더더욱 없다. 실력만으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에, 그동안 쌓아놓은 네트워크가 없다면 기대안망이다. 현직에 있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하는 대목

언론사 차원 퇴직이후대책 절실

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인터뷰를 한 12명은 설문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퇴직 언론인의 ‘내밀한’ 현실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운 진단을 해주었다.

이들의 얘기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워낙 마감시간에 익숙하기에 미미미미 뭔가를 준비하는 체질이 아니며, 늘 바쁘게 쫓기듯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퇴직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설마 내게 퇴직이라는 게 닥치랴 하는 안이함도 적지 않다고 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맞이한 퇴직은 대단히 난감한 일로 다가온다. 명함도 없이, 딱히 할 일도 갈 곳도 없는 생활은,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돌아가던 언론사 시절과는 천

이다. 운이 좋게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도 길게 가기 어렵다. 대학의 강사 자리는 그나마 낫지만 비정규직의 설움을 톡톡히 겪곤 한다. ‘갑’으로 살던 언론인이 ‘을’의 처지가 된다는 건 무력감을 몰고 온다. 쉽게 생각했던 귀농도 한 달에 10-20만원 수입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사리 실행에 옮길 수가 없게 된다. 푼푼이 모아놓은 저축도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거의 쓸모가 없게 됐다. 그보다는 왜 진작 연금에 신경쓰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만이 쓰라리다. 더 이상 나를 원하는 곳이 없다는 것,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커진다.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퇴직 언론인들의 삶이 어렵거나 어둡거나 한 것만은 물론 아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이나 챙기지 못했던 동창모임도 새로운 활력

소가 된다.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전과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수입이 대폭 줄었다고 해서, 오라는 곳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생 2막’, 그 삶의 질은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인데, 굳이 수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는 사회참여와 더불어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퇴직 언론인을 위한 뉴스펀딩이나 칼럼 아웃소싱, 저술 지원, 대학 강의 지원, 언론인 연금제나 언론인 기금 마련, 정보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얘기되었지만, 과연 그 실행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퇴직 언론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생각하면, 퇴직 언론인을 위한 고민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인회의 몫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언론인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회에서도 정부의 지원대상에 퇴직 언론인을 포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는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기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퇴직을 위한 소프트랜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안식년이나 ‘반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퇴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회 역시 퇴직 이후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정보교환의 장이 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관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형편이 어려운 퇴직 언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4]

지식활용-복지정책등 배려 필요

대한언론인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퇴직언론인 실태조사는 우리 언론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우리나라 퇴직언론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언론계에서 얼마 동안 어떤 부서에 근무했는지, 전직하여 다른 분야에서 언론경력 이상으로 길게 일한 사람도 언론인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등의 기준에 따라서 숫자는 크게 달라진다.

언론사 내에서도 취재 편집부서가 아닌 공무, 업무, 광고계통이나 방송사의 엔지니어, 업무분야 등 편성 제작 이외의 부서 근무자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접어두고 이번 퇴직언론인 실태조사에서는 10년 이상의 언론사 기자 경력을 가진 사람을 1차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도 여러 문제가 남는다. 오늘날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등으로 소규모 다양화한 언론도 수없이 많은데 어떤 매체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이번 조사는 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방송사, 뉴스통신사 출신 퇴직언론인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3개 언론사 사우회로부터 취합된 명부에 등재된 퇴직언론인이다. 전체 숫자 4,333명 가운데 비 해당자를 제외하고 연락 가능한 사람 1,807명이 표집 틀로 활용되었다.

궁금한 조사결과를 먼저 보자. 응답자 600명의 평균연령은 72.5세(최저 48세, 최고 94세), 평생 3.2개의 직장에서 33.4년 동안 근무했다. 직장경력 가운데 언론인으로 종사한 경력만 계산하면 2.3의 언론사에서 27.8년 동안 근무하였다는 계산이다.

동거가족은 본인 포함 2.7명이다. 총 가구원 수 2명이 48.7%로 가장 많고, 이어서 3명(19.2%), 4명(12.5%) 순이다. 주요 소득원은 연금(30.7%), 개인저축(17.8%), 월급(17.7%), 임대수입(16.8%), 자녀 등으로부터 도움(9.0%) 순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금수급자(N=418)의 88.0%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군인, 교육자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지만 언론인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 국민연금

은 언론인들의 노후 생계를 지탱할 안전하고 확실한 사회보장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직 언론인들도 참고할 일이다.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20.5만원. 구간별로는 '3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31.7%였고 '200~300만원 미만' (21.7%), '500만원 이상' (13.8%) 순으로 뒤를 잇

조사결과를 보고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램 및 지원방안은 무엇일까. '취업(전직) 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이라는 응답이 13.5%로 가장 높았고, '(언론인)연금 지원' (7.8%), '경제적 지원' (7.7%), '학교나 각종 기관, 단체 등 강의 제공' (6.0%), '집필, 저술 지원' (5.7%)과 같은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퇴직 후 생활에 도

60,70년대와 달라진 언론계 투영

는다. 300만원 이상이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8.3%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응답자의 57.7%가 3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가 월 적정 액수보다 낮다는 것이다. 개인 용돈은 월평균 84.4만원으로 '100~125만원 미만' (27.3%), '50~75만원 미만' (27.0%), '150만원 이상' (13.2%), '25~50만원 미만' (13.0%) 순이다. 30년 가까이 종사한 전문 언론인 가운데 40%가 월 2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의 용돈으로 살아간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보인다. 응답자의 35.5%가 현재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38.0%가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어서 경영관리직(17.4%), 자영/판매업(14.6%), 사무직(8.5%), 서비스직(7.5%) 등의 순이다.

언론인들은 원래가 우수한 인재들이었고, 언론계 종사 기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전문직과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언론인에게 필요한 정책 프로그

램이 되는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이 아쉽다는 결과이다.

언론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22.5%에 그친다. 퇴직 이후를 위해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인관계/네트워크 형성'이 45.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34.8%), 외국어 습득(17.0%), 자격증 취득(13.3%), 귀농 및 창업 준비(6.7%) 순으로 언론인 출신은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려는 욕구가 강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퇴직언론인 실태조사는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발전과 변화가 투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는 퇴직언론인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던 시기였다. 현직 기자들의 생계와 복지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기자협회는 급료 인상과 무보수 기자 일소 캠페인을 벌여야 했다. 필자가 『기자협회보』 편집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두 차례 전국 언론인 구제적인 급료 조사를 실시했다. 1970년 3월에는 문공부와 국세청의 협조로 전국 언론인의 급료와 학력을 조사하여 「언론인 26%가 면세점 이하」라는 통계수치를 협회보에 보도했다. 주재기자

는 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였고, 무보수도 많았다. 기자협회는 각사에 무보수 기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급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기자협회보』, 1970.3.13) 오늘날은 기자들의 급료를 국세청이 기자협회에 알려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런 인식이 없던 시절이다. 1971년 10월에는 문공부가 수집한 각 언론사 개인별 급료 현황 자료를 입수하여 「전국 언론인 급료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기자협회보』, 1971.10.1) 전국 언론사의 급료인상을 압박하고 기자들이 경영주에게 타사와 비교하면서 급료 인상 요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기초 작업으로 「전국 언론인 학력(學力)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언론인 평균연령은 37.01세, 급료 평균은 2만 4천 548원이었고, 학력은 23%가 대학을 못 마쳤다는 결과였다.

주재기자는 거의 절반, 본사기자도 12.4%가 대졸 이하의 학력이었다.(『기자협회보』, 1971.6.11)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퇴직언론인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학사)'이 56.8%로 가장 많다. 석사(과정)(28.2%)와 박사(과정)(6.3%)를 합하면 34.5%가 석·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과정에 있다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학 전공은 인문(어문, 철학, 사학)'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법학/정치외교/행정(24.1%), 신문방송/언론/홍보(11.1%), 상경(10.0%)의 순이었다. 45년 전과 비교하면 언론인의 학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현직언론인 가운데는 '신문방송학/언론/홍보학' (22.9%) 전공의 비율이 높아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언론학의 발전이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하겠다.

결론으로 퇴직언론인은 국가 사회의 큰 자산이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소중한 자산을 활용하고 이들의 복지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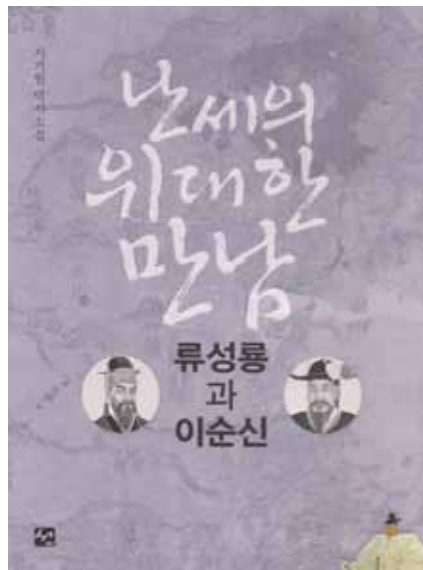
고 서기원 회우(전 KBS 사장) 유고집 장편소설 '난세의 위대한 만남' 출간

소설가이기도 했던 서기원 전 서울신문·KBS 사장의 장편 역사소설 '난세의 위대한 만남-류성룡과 이순신'이 출간됐다. 이 소설은 1995년 서울신문에 '소설 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됐지만 그동안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소설이기도 하다.

작가는 생전에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내면화하여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를 의식하며 역사소설에 특별

한 관심을 쏟았다. 역사의 의미와 교훈은 누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발발에서부터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가는 '난세의 위대한 만남-류성룡과 이순신'은 매우 쉽게 읽힌다. 읽고 나면 임진왜란과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깊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만년의 서기원 역사소설이 갖는 특징의 하나이다.

그는 1957년 단편 '안락사론'과 '암사지도'가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다. 작가와 기자를 병행했던 그는 1970년대 후반 관계(官界)에 나가 권력 핵심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 발표해 주목을 받은 작품이 조광조를 다룬 '왕조의 제단'이다. 이 작품으로 본격화한 지식인과 정치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구의 마지막 연장선에 '난세의 위대한 만남-'이 있다. [4]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예능프로 전성시대의 겉과 속

1980년 말, TV가 컬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송은 보도 교양이 대세였다. 주제도 선진화, 세계화 등 거대 담론이 이끌었다. 그 시기 각종 특집 방송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대표 선수는 단연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었다. 이 초장기 다큐멘터리는 방송의 힘을 실감케 했다. 유네스코는 이 프로그램을 인류 유산에 포함시킴으로써 TV 프로그램이 역사가 되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밖에 백남준을 모국에 알린 ‘굿모닝, 미스터 오웰’ 등 통신휘성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획기적으로 열어주었다. 세계가 동시에 연결됨으로써 종래의 시공(時空) 개념을 방송이 무너뜨렸던 것이다.

88 서울 올림픽으로 정점을 찍은 보도 교양의 시대는 민주화 이후, 드라마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대하사극이 등장했다. 이 사극들은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 비춘 상징성이 강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한 측면도 있다. 1990년, 민방의 등장과 함께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와 같은 블록버스트 드라마들이 등장했다. 지상파 3사는 스타 작가와 연기자들을 영입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드라마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3김시대’와 같은 현대 정치물도 방송됨으로써 달라진 세상을 실감케 했다.

중편 등장 드라마시대 종언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드라마 시대는 2010년대 들어 케이블 종합편성채널들이 등장하면서 예능에 밀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단연 예능의 전성시대다. 그에 따라 거대 담론은 사라지고 가볍고 재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은 즐기고 있다.

방송 10주년을 맞은 MBC ‘무한도전’에 대해 강명석 방송평론가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케이블 채널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오락(식스맨 프로젝트), 음악(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여행(극한 알바), 역사 다큐(배달의 무도) 채널을 아우르는데 이어 5대 기획으로 발표한 우주 비행 도전이 실현된다면 과학 채널까지 선보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는 “‘무한도전’은 이미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KBS ‘1박2일’ 출신인 나영석 PD는 tvN으로 자리를 옮겨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웹 예능 ‘신서유기’를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스스로 자기 브랜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티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무한도전’ ‘신서유기’ ‘수퍼맨...’ 등 드라마 영역까지 침투 인기몰이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TV 방영 없는 웹 온라인 콘텐츠’로 선보인 ‘신서유기’는 중국판 ‘1박2일’ 시즌 2 정도가 되는데, 3000만 조회수를 앞두며 빅히트했다.

중부대 황유선 교수는 지난 달 22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문학인 대회> 발제에서 ‘꽃보다 할배’를 세대간 화합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춘기 청년들처럼 배낭을 메고 여행을 즐기고 모험에 나서는가 하면 젊고 멋진 배우는 어르신들의 집꾼과 현지 가이드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그렸다. 지상파에서 뉴스를 하는 시간대에 tvN은 이 프로그램을 보완 편성해 시청률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대중에게 회자되며 콘텐츠 파워지수가 높아지자 미국 등의 방송 선진국에 프로그램 포맷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육아프로 출산장려 기여 기대

황 교수는 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퍼맨이 돌아왔다’를 육아 예능에 대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남자들이 벌이는 육아전쟁, 한 인격체로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아이들과 교감하는 부모의 모습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파이터 추성훈과 일본 톱모델 야노시호의 딸 사랑이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텔런트 송일국의 세 쌍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가 벌이는 다양한 활약상, MC 이휘재가 쌍둥이 아들을 돌보는 모습과 축구 선수 이동국이 아이 다섯을 키우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인기로 힘입어 국가적 과제인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JTBC의 ‘비정상회담’은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들이 벌이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외국인들의 가치관 차이와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 등은 문명 비판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예능의 기세는 마침내 드라마의 영역까지 침투했다. 예능의 서수민 PD와 드라마의 표민수 PD가 합작한 KBS의 ‘프로듀사’가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예능에서 기획됐다. 제작 단계에 드라마 PD가 투입된 것이다. 방송사 예능 PD들의 작업 현장을 보여준 이 프로그램은 예능의 자체 홍보와 자신감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마침내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33개국에 수출되었다.

장르 구분이 애매해진 프로그램들도 있다.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방송횟수 200회를 넘겼는데, 다수의 젊은 탈북 여성들과 연예인들이 출연해 토크를 한다.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듣는 것인데, 짧은 치마, 노출이 심한 의상 등으로 복장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출연자들은 한결 같이 미녀들인데, 북한의 여성 응원단 보도 때마다 미녀들에 렌즈를 들이대는 한국 언론들의 행태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짙은 화장에 선정적인 의상을 한 젊은 미녀들이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는 것이 자칫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 상대가 있는 통일 문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한글파괴·막말·욕설 위험수위 넘어서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한글 파괴와 막말, 욕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아우르는 형식의 ‘마이 리틀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언어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엔 전체 방송을 대상으로 방송 언어를 중점 심의하도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 심의 연감에 따르면 4개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1년에는 이들에 대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가 20건이었지만 2012년 86건, 2013년 111건, 2014년 1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널A 45건, MBN 22건, JTBC 19건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막말 방송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매년 감점 정도가 낮은데다 비계량 평가의 비중이 높아 종편의 뒤를 따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국언론인회보는 보도했다. [4]

2014 신문 발행

신문 부수를 공식 조사·발표하는 한국 ABC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전국 159개 일간신문의 2014년도 발행·유통부수 현황을 발표했다. ABC협회 신문부수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이날 발표내용은 2014년 1~12월 12개월간 월 평균부수와 연 평균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중 재경 9개, 지방 16개사 등 25개 신문협회 회원사의 유통부수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ABC협회가 이날 발표한 2015년도 우리나라 159개 신문의 총 발행부수와 유통부수는 990만8,938부와 712만4,619부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의 발행부수와 유통부수 비중은 각각 80.5%와 84.3%에 달했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전국지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유통부수 감소현상이 완화되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첫째, 유통부수의 감소폭 완화는 그 동안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에 의해 급속히 진행되어 왔던 신문판매 시장의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 발행부수 대비 유통부수 비율 증가는 신문사의 판매 전략이 허수가 많았던 발행부수 중심에서 유통부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ABC협회 부

신문명	2014년분	
	발행부수	유통부수
조선일보	1,673,049	1,294,931
중앙일보	1,056,946	795,209
동아일보	916,546	737,053
매일경제	725,701	553,823
한국경제	505,263	350,952
스포츠조선	219,531	178,409
한겨레	244,830	198,931
한국일보	199,613	141,375
경향신문	215,131	169,058
국민일보	201,322	141,648
스포츠서울	172,264	121,591
문화일보	170,460	149,401
서울신문	161,131	110,217
서울경제	81,725	54,977
세계일보	89,583	65,765
머니투데이	75,276	57,494
전자신문	62,359	50,148
내일신문	58,584	47,027
헤럴드경제	56,988	40,898
부산일보	154,069	117,247
매일신문	144,967	99,434
국제신문	102,498	70,180
영남일보	71,796	47,826

· 유료부수 밝혀져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중앙지의 발행·유료부수 순위는 여전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발행 부수 167만 3,000부로 1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가 105만7,000부로 2위, 동아일보가 91만 7,000부로 3위였다. 이어 매일경제신문(72만6,000부), 한국경제신문(50만5,000부)의 순서였다. 6~10위는 농민신문(29만8,000부), 한겨레신문(24만5,000부), 스포츠조선(22만부), 경향신문(21만5,000부), 국민일보(20만1,000부)였다. 실제 판매량을 집계하는 유료부수 순위에서도 조선일보는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129만5,000부를 기록했다. 2위는 79만5,000부의 중앙일보였다. 동아일보는 전년보다 3만부 정도 늘어난 73만7,000부를 기록하면서 2위와 격차를 줄였다. 유료부수 4위와 5위는 매일경제신문(55만4,000부)과 한국경제신문(35만1,000부)이었다.

한국ABC협회는 2014년 1~12월까지 신문 사별 인쇄 내역, 발송 비용, 수급 내역, 독자 자료 등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통해 발행·유료부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수 인증 결과

신문명	2014년분	
	발행부수	유료부수
강원일보	65,000	43,436
경인일보	52,809	40,025
경남신문	43,687	33,138
강원도민일보	41,500	32,287
광주일보	40,817	30,117
대전일보	38,107	28,098
경기일보	32,085	24,367
충청투데이	31,020	19,641
전북일보	26,000	18,494
중도일보	22,193	12,145
경남일보	22,029	15,658
경상일보	21,630	13,430
경북일보	21,490	10,013
한라일보	20,995	12,280
제주일보	20,600	14,273
경북매일	19,000	9,558
대구일보	18,021	9,433
전북도민일보	16,525	12,656
울산매일	16,500	10,422
중부일보	15,210	8,868
중부매일	12,535	5,909
경북도민일보	11,900	6,657
전라일보	9,100	4,300
계	7,978,385	6,008,799

“운동권 퇴진하라” 칼럼들 눈길

2015년 12월 ‘문재인 안철수 정의화 김무성’ 부산정치가와 ‘친노세력 한상균 민노총 486운동권’ 증후군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았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 드러내

일제(日帝)가 민왕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120년과 한반도가 일제 사슬에서 풀려난 해방 70년이 겹친 을미년의 세밑, 운동권의 이념 및 기득권 수호·YS(김영삼)계열 부산 정치가들의 대권 야망이 뒤섞인 정치사회적 열병으로 제일 야당이 분열되고 새누리당도 내홍 조짐을 드러냈다. YS~MB(이명박) 20년 누적된 정치권력 부패, 국가 기강 해이, 재벌 탈세, 군장성 방위산업 비리 척결 등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과 국가 정체성 확립도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으로 12월 정돈(停頓) 상태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0.25% 포인트 올려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 박근혜정부의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여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 평가 덕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첫걸음을 내디뎠고, ‘도발→보상→도발’의 남북관계 악순환도 끊었다. 그러나 국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성장 절벽’에 부딪히고,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최대 난제는 운동권이 큰소리치는 정치의 후진성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전제 조건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는 관련법 제정 개정으로 협조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다. 제1야당의 분열로 국회가 마비된 혼돈 속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대신한 1987년 신헌법체제 이후의 잡다한 문제가 노증돼, 12월 오피니언 난은 뜨거웠다. 특히 금기시했던 운동권 비판이 주목할 만했다.

‘정치표류와 국민의 선택’(이흥구 칼럼, 12월 14일) ‘낡은 진보 청산해야 한다’(류근일 칼럼, 12월 15일) ‘운동권 인사들 이제 애국심으로 물러나 달라’(양상훈 칼럼, 12월 17일)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의 동시 종말(송희영 칼럼, 12월 19일) ‘헬정치를 폐하라’(송신용 칼럼, 12월 10일) 등의 칼럼과 사설 ‘법안 수백 개보다 정치권 부패 척결이 훨씬 중요하다’(12월 3일) ‘새 정치 내걸고 집안싸움만 하다 갈라선 안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주체사상으로 변질된 민주화운동 용퇴않으면 야당·나라 미래 없다”

철수 문재인’(12월 14일) ‘새정연, 대안 없이 경제 법안 견어차기만 할 건가’(12월 24일) 등은 YS~MB 20년 정치 모순 적폐 등을 고발한 것이다.

거대담론 외치는 전업 운동권들

류근일 칼럼은 “독선, 교조주의, 과격주의가 운동권의 문제”라며 ‘계급 혁명’ ‘민족 해방’ ‘민중 총궐기’ 등 거대담론을 외치는 그들은 떼거리 전업 운동권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친노 패권주의, ‘철밥통’ 노조로 짝 막힌 운동권은 바뀔 수 없다고 진단한 류근일 칼럼은 안철수 탈당으로 중도개혁당이 출현하길 기대했다. 이흥구 전 총리는 87년 체제 이후 국회와 정당은 퇴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하고 “여소야대 4당 체제였던 13대 국회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며 생산적이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상훈 칼럼은 편협한 운동권이 전문가에게 길을 터줘 주라고 호소했다. 30년 전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는 빠지고 ‘운동권’만 남아 있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민주화 운동이 주체사상 운동으로 변질되었다고 고발한다.

두번이나 정권을 잡고도 분이 덜 풀린 운동권 사람들의 억지 논리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운동권 용퇴 혁명 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당과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양상훈 주간은 단언했다. 송희영 주필은 민주화 이후 권력을 위임 받은 운동권 세력이 권력자로 군림했다며, “국회의원 귀족 노조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타락했으며 ‘민주화’ 인사들을 대통령·국회의원으로 떠받든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저성장의 쪼가리 배

당금뿐”이라고 한탄했다.

사명과 수명 다한 화염병 세대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한 안철수 의원은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안의원의 운동권 세력과의 결별은 야권뿐만 아니라 3당 통합 후 정체성이 흐려진 여권의 체질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을미년 세밑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모두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운동권 ‘신악 정치가’와 귀족노조에 대해 6·25를 체험한 세대와 지식인들은 “사명과 수명이 다했으니 조용히 물러가 달라”고 종용한다. 24일 대법원의 박상은 의원직 상실형 판결로 19대 국회는 역대 최대인 23명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 받은 박지원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1심 재판중인 의원도 다수 있어 의원직 상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신문 정치면에 정파주의와 경마식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오피니언 난만은 중립적이고 진실추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기रो에선 87년 체제’(이일영 칼럼, 12월 17일) ‘위기에 처한 정당정치와 의회주의’(김인영 시평, 12월 17일) 등의 칼럼과 사설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론’(12월 26일) ‘여권 공천권 놓고 이진투구’(12월 26일) 등은 새누리당 김무성계의 공천권 관련 주장이 내분의 불씨라는 비판 등을 담았다.

교수신문 사자성어 논란

교수신문의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의 책임을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에게 묻는다”는 사자성어 혼용무도(昏庸無道)에 대해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한 적은 없었다”며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당(唐) 중종이 직간한 위월장(韋月將)을 죽인 것을 혼용무도하다”고 한 인조시대 대사헌 장유(張維)의 ‘계곡선생 만필’에 있는 ‘혼용무도’만을 발취해 대통령을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로 폄훼한 것은 이용득 의원의 막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학자도 있다.

일부 신문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보도가 포퓰리즘이었다는 지적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회담에 관한 일부 신문 보도가 일본의 언론 조작에 춤을 추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 재조명은 일제 침략 진실 규명의 단초였다. 정부도 1965년 한일협상의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2월 20일 ‘쇄빙선 아라온호의 원앙 어선 켄스타호 남극에서 구출’을 신문이 목살하거나 축소 보도한 배경이 궁금하다. [\[출처\]](#)

본회 2015 송년회 겸 8순회우 축하연

2015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 겸 팔순회우 축하연이 12월 22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본회 김은구 회장, 신우식 제재형 조창화 고문과 홍원기 명예회장을 비롯한 160여 명의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5세 이상 참석 회우 별항 참조)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까지의 칠순잔치에서 총회결정에 따라 팔순연으로 바꾼 의미를 설명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한언론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퇴직언론인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2016년에는 힘을 합쳐 대한언론인회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팔순 회우 축하연에서는 올해 만 80세가 된 회우들에게 축하 기념품을 증정하고 팔순 회우들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김은구 회장은 또한 국방부 브리핑룸에 6·25참전언론인명패를 헌액 해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대한언론인회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준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 대한언론인회 회우를 위해 특별 조제한 선물을 보내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이사장과 퇴직언론인실태조사사업을 위해 수고한 오수정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장, 글로벌리서치 강수영 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못다한이야기’ (5집) 간행위원장 이형균 본회 부회장, 건강포럼을 8년동안 주관해온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에겐 공로패가 주어졌다.

제재형 본회고문은 팔순회우를 대표해 답사를 했다(별항).

이날 송년회는 이승은 경기명창 등 4명이 초청돼 ‘백세인생’ 등을 열창, 참석자들을 흥겹게 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송필호 회장은 축하화환을,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은 금일봉을, 문명호 본회 주필과 대봉출판사도 금일봉을 보내와 자리를 빛내 주었다. [본문]

▲ 송년회 협찬 해주신 분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 300만원

대봉기획 100만원

문명호 본회 주필 30만원

▲ 2015 송년회 참석 원로회우(85세 이상 연령 순)

조성국 광찬호 김윤덕 박영식 박재권

김 집 우경식 김원재 이순기 정재호

▲ 2015년 팔순회우(35년생)

강승훈(대한일보 편집부국장)

강한필(경향신문 편집국장)

고덕환(중앙일보 기자)

고두현(서울신문 국장)

김광희(동아일보 이사제작국장)

김영수(MBC 사장)

김유동(문화일보 부국장 편집위원)

노상국(동아일보 심의위원)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박동은(동아일보 기자)

박진서(서울신문 논설위원)

봉두완(TBC 앵커)

서병주(KBS 라디오본부장)



16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대한언론인회 2015 송년회 겸 8순회우 축하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주는 감사패를 김민석 대변인이(왼쪽) 받고 있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왼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김은구 회장 인사말.



이병규 문화일보회장(왼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에게 주는 감사패를 자생한방병 박정모 원장(왼쪽)이 받고 있다.



신우식 고문 축하.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장(왼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강수영 글로벌리서치부장(왼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홍원기 명예회장 건배제.



이형균 부회장(왼쪽)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왼쪽)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사회를 맡은 정운중 상임이사.

손세일(동아일보 논설위원)
심재복(대한일보 편집부기자)
엄영섭(한국경제 사외회장)
여영무(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역순(세계일보 주필)
이용호(대전일보 논설위원)
이은명(MBC 해설주간)

이자현(서울신문 이사)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종전(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이준기(한국일보 편집부장)
이창열(동아방송 사회부장)
장덕상(서울신문 상임감사)
전신병(동화통신 정치부장)

정덕교(중앙일보 사회부장)
제재형(한국일보 편집위원)
조관희(서울신문 출판편집국장)
조규진(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
최재규(동아일보 출판부장)
최종철(동아일보 편집부국장)
홍인근(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사)

‘100세 인생’ 메아리



8순 회우들이 기념품을 증정받고 포즈를 취했다.



이승은 경기명창 등의 축하공연.

80용의 냇두리(산수연 답사)

제재형(본회 고문)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유수 같은 저 시간은 고장도 없네” 유행가의 한 구절입니다. 생로병사의 인생역정 속에서 80세 산수(傘壽)를 맞은 늙은이의 삶을 날수로 따지면 29,220일입니다. 겨우 30,000일도 못되는 숫자요, 무변광 대한 우주의 시공(時空)속에서는 작은 점 하나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100세 장수시대 인생 삼모작의 시발점에 선 우리들은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훨씬 짧다는 사실 앞에 소스라쳐 놀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의 손익계산서를 쓸 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되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한 번 내뱉은 말, 둘째 시위를 떠난 화살, 셋째 흘러간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조심 하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남은 시간을 아껴 쓰자는 충고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루는 86400초로 분해됩니다. 푹 푹푹푹 값비싼 시간을 무료하게 소비하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봅니다.

공자(孔子) 말씀에 50에 지천명(知天命), 60에 이순(耳順), 70에 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 했지만 80에는 적당한 대구(對句)가 없었던 듯 합니다. 친구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깜빡깜빡 잊을 때가 없지 않고, 집에서 잤는지 산에서 잤는지 아물거릴 나이가 바로 80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승 사자가 오늘 당장 데리러 오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니, 너무 재촉치 말라”



제재형 고문이 8순회우 답사를 하고 있다.

고 물리칠 연치(年齒)도 80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이 나쁘면 나쁜 일이 생기는데 보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미(機微)겠지요.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나이는 늙고 몸은 쇠약해져서 병원 찾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구구팔팔 이삼사(9988 234)하기엔 19년이 남았고 아름답게 쌓여가는 추억은 젊은 날의 낭만열차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제 겨우 사리(事理)를 분별하는 지혜로 ‘이용사의 마음’을 터득했으니, 이해 용서 사랑 세 마디의 머리글자를 모은 생활 지침이라고나 할까요. 허허허. 따지고 보면 인생살이는 희비 쌍곡선입니다.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한 가지 눈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울어 집니다. 동일한 마음의 샘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의 참 맛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물과 웃음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김병원(金炳元) 1946년 10월 1일 생



<주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16 그랜드 힐 아파트 104동 1403호 전화 010-9487-1135
<경력>
코리아헤럴드 입사(1974) 사진부 차장, 북경아시안게임 취재 팀장, 대전 엑스포 신문사진팀장

이민섭(李敏燮) 1939년 2월 28일 생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18길 67, 방배자이 103동 403호 전화 010-5229-2227
<경력>
서울신문 견습11기 입사(1965)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11, 12, 13, 14대 국회의원, 자민련 부총재, 수원대 석좌교수

황유성(黃裕性) 1942년 1월 16일 생



<주소>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3길 22(북가좌동 349-1) 전화 010-8937-1245
<경력>
동아방송(DBS) 아나운서(1968) 동아방송 심의부, KBS 방송심의위원, KBS 보도본부스포츠제작실, KBS 올림픽방송본부 차장, KBS 라디오제작센터 제작위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가나다순)

<2015년 광고협찬>

IBK기업은행(2회)	유라테크(2회)
KBS(2회)	전자랜드(2회)
KDB산업은행(3회)	조선일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코바코(2회)
경상북도	틀레블 프레스
광주시(2회)	포스코
두산	한국SGI
딜로이트 컨설팅	한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농어촌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로공사(2회)
한국인터넷진흥원(2회)	한국석유공사
부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삼성	한국이앤엑스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화천군
양구군	

울다가 웃고, 웃다가 읊니다. 슬픔과 기쁨도 한 몸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슬픔 안에 기쁨이, 기쁨 속에 슬픔이 잠겨 있다지요. 기왕에 사는 것, 잘 사는 방법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슬퍼하며 살 것인가? 기뻐하며 살 것인가?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고 믿습니다. 슬플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는 더 기뻐하면 우리네 삶은 아름답고 희망적입니다.

젊은 날 나는 “인생이란 신진대사와 회로애락 속에서 자기 이상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존재”라고 정의(定義)하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었지요. 지나고 보니 역시 한 장의 추억으로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다가오는 순간순간은 나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

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될 따름이다” 다가오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가를 납니다. ‘안보이면 간 줄 알아라’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대한연론인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70세 고희(古稀)잔치를 (100세 장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애고 올해 처음으로 80세 산수연을 베풀어주시니 우리 망구(望九)의 동료 34인은 김은구 회장님의 집행부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새삼 다짐합니다. 감기 들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또한 잔소리하는 늙은이가 되지 말고 웃으며 도와주는 형님이 되자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㉞

회우들이 펴낸 신간

정진석 명예회우 ‘책, 잡지, 신문자료의...’

저자는 40년 넘는 기간 한국 언론사를 연구하면서 장서가(藏書家)들을 많이 만났다. 개화기 이래 이 땅에서 발행된 다양한 종류의 신문, 잡지, 출판물을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보존한 사람들은 문화재의 수호자들이었다. 방대한 출판물들을 한 장씩 뒤지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일목요연한 연표로 작성한 인물도 있다. 끈기와 집념, 우직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수집·정리하는 일에 매달리고 자신의 처지로는 감당하기 벅찬 돈을 기꺼이 쾌척하여 보통사람으로는 도저히 엄두내지 못할 일을 해 낸 사람들이다.

신문수집가 오한근, 잡지 수집가이면서 서지학자였던 백순재, 서울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언론연표를 작성한 계훈모,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신문과 잡지를 모으고 정리하여 학술과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오한근과 백순재는 신문과 잡지를 수집하는 역할을 분담했고, 계훈모는 언론연표를 작성하여 연구자들에게 지식의 탐험로를 찾을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들어 주었다. 서지학자 겸 출판평론가였던 안춘근, 잡지 수집가이자 잡지사 연구가 김근수, 시집을 전문으로 모았던 하동호는 쓰레기로 폐기될 처지였던 책과 잡지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찾아내어 보존하고 분류하면서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재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잡지 출판인으로 평생을 보낸 최덕교는 은퇴 후에 3권의 방대한 사료집 ‘한국잡지 100년’을 펴냈다. 칠순 나이에 잡지 실물을 조사하는 7년 각고 끝에 이룩한 업적이다. 잊을 수 없는 외국인들도 있다. 신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식물학자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와 소설가 가자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는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언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남겨주었다.

프랑스 외교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일본인 서지학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문헌목록은 한국학 연구의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

신문, 잡지, 출판물은 시대의 산물이다. 초창기의 신문과 잡지는 개화, 자주, 계몽이라는 국가적인 거대 목표를 추구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과 근대화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탄압과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신문, 잡지, 도서를 수집하고 목록과 연표를 작성한 사람들은 출판물이 생산되던 시대상과 사상을 지킨 수호자들이었다. 책의 저자 정진석 교수는 이제는 고인이 된 국내의 수집가, 연표 작성자와는 모두 인연이 있었던 마지막 세대이기에 책의 의미가 더 크다.



백인호 회우 ‘YTN 1300일 드라마’

‘YTN 1300일 드라마’는 저자가 YTN 사장으로서 재직한 3년 10개월간의 YTN의 제작과 경영의 실상을 밝힌 것이다. YTN은 1995년 1월 1일 케이블 TV 시대가 시작될 때 뉴스전문채널로 개국했다. 1995년 케이블 TV 개국은 한국의 뉴미디어시대를 여는 원년이었다. 건국 후 50년 동안 공중파TV의 과점형태로 전파 방송시장이 지배되어오던 환경이 다채널다매체로 일변한 것이다. 한국의 TV방송사(放送史)를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YTN이 선택한 24시간 뉴스방송장르는 전혀 생소한 것이었으며 당시의 우리의 방송환경 상황,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생존과 성장에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YTN은 개국 초기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한 때 파산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저자는 YTN 4대 사장으로서 취임하여 당시 위기에 몰려있던 YTN의 재정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저자가 직접 50대 광고주들을 방문하며 광고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광고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당시 취약했던 회사의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남산 서울타워의 과감한 인수 및 남대문로 사옥 마련으로 기존 수익구조였던 광고와 수신료 외에 안정적인 부가 수익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YTN 콘텐츠 질적 개선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최초로 뉴스 화면에 증권 시세 스크롤 도입, CNBC의 콘텐츠를 연결해 24시간 콘텐츠 확보 및 미국 외환시세의 실시간 방송, CNN의 긴급뉴스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긴급뉴스 방송시스템을 구축, 고가의 3D영상 기술 시설의 도입을 통한 YTN 화면의 선명도 향상 등 여러 면에서 질적 개선을 이끌었다. YTN은 TV화면 하단에 스크롤(문자)뉴스방송기법도 국내 최초로 개발, 원소스 멀티유즈의 뉴미디어 특징을 실현했다. 공중파 TV보다 2년이나 앞서 미국 등 북미주에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뉴스송출을 시작, 전세계로 YTN 뉴스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국내 TV 뉴스를 세계로 외연을 확대하기도 했다. 저자의 YTN 경영 실상 내용 전개 중 잠깐씩 언급되는 국내 재계인사와 세계적 유명 인사들과의 일화도 이 책의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소소한 일화와 헨리 키신저 전 미국국무장관,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관심을 이끈다. 이 책은 방일영문화재단의 저술지원을 받았으며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판되었다.

남재희 원로회우 ‘진보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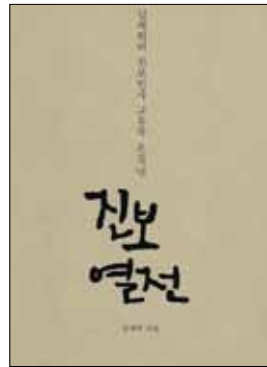
남재희 원로회우(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국회의원·노동부장관)가 진보인사 교유록 오십년을 쓴 ‘진보 열전’이 출간됐다.

이 책에 등장한 진보이사는 14명으로 △남북관계에 얽힌 사람들로 송남현(깨끗한 ‘선비’ 혁신정책) 박진목(민간통일운동가로 한평생) 김낙중(통일 돈키호테, 오랜 친구) △혁신정당에 매진한 사람들 이동화(4·19 공간의 통일사회당 당수) 고정훈(혁신계의 풍운아) 김철(매우 끈질긴 혁신정책) 권대복(‘악운의 톱니바퀴’에 밀려든 진보당 여명회장) 정태영(진보당 역사를 정리한 비밀당원)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 송지영(‘구름에 달 가듯’ 산 언론인) 조덕송(‘부용산’ 애절한 가락 ‘조대감’) 송건호(한겨레 창간을 이룬 송 선배의 민낯) 임재경(문학청년 기질의 언론 투사) △언론인의 귀감이 된 거목들이란 부제의 조세형(소신과 정치가 일치했던 행복한 정치인) 박권상(막후에서 역량을 발휘한 정치논객) 등이다.

필자는 ‘책을 내면서’에서 “이들은 거물급은 아니지만 울곧게 곳곳이 산 인물들이었고 정치적 색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진보에서 리버털까지 다양한 휴먼스토리였다”고 했다. 또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인물들은 진보적 개혁적인 인물들이다. 요즘 처럼 네오·리버털이 지배하고 뉴라이트가 판을 치는 사회의 사각에서 보면 회색의 인간상”이라고 하면서 서양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진리는 회색계통의 어느 색조에 있다. 현상에 접근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김기협(역사학자)씨는 서평에서 “남재희 선생은 유신말기에 언론계에서 정치계로 옮긴 후 17년간 집권당 소속으로 노동부장관, 당정책위의장 등 顯職을 많이 맡았지만 그를 양자쪽만 찾아다니는 ‘해바라기’로 보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진흙속의 연꽃’으로 아끼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남 선생의 개인적 관계에 입각해서 그려주는 혁신계의 모습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시야를 밝혀준다”고 했다.

〈(주)메디치미디어 발행·311페이지·값 16,000원〉



최금녀 회우 詩選集 ‘한 줄, 혹은 두 줄’

시인 최금녀 회우가 시선집(詩選集) ‘한 줄, 혹은 두 줄’을 펴냈다. 최 회우의 신간을 소개함에 있어 먼저 기록할 게 있다. 그동안 최 회우가 쓴 시 가운데 100편을 고른 이 시선집은 이미 사라져버린 낯할자 문화인 주조 문선 식자 조판 인쇄 제본 등 전 과정을 우리들이 평생을 함께 살았던 옛날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역사 이래 최초의 금속활자 문화민족으로서 한지에 활판인쇄로 복원한 뜻깊은 역사 인식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최금녀 회우(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의 이번 이 선집은 최남선의 신시 이후 100년을 맞아 100명의 시인을 선정하여 뽑아 시인마다 100편의 시를 담아 간행하는 계획에 든 것으로 김남조 이근배 신달자 유안진 박세철 오세영 시인 등에 이은 39번째 시선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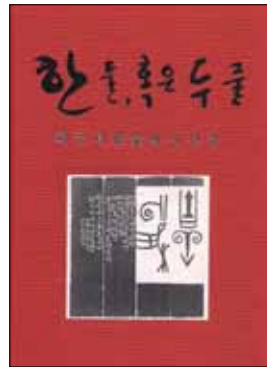
일곱권의 시집과 한권의 시선집을 내고 있는 최 회우는 책머리에서 “한참 때에는 시에 명중되어 날새는 줄 몰랐고 시가 신앙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70 중간 고개를 넘는 모진 세월이 흘러도 시는 감격스럽고 시의 신비는 변함이 없다. 수시로 나를 설레이기도 우울하게도 주눅이 들게도 했다”면서 “그동안 한데 잠을 자던 나의 시에 행복이 돌아왔습니다”라고 했다.

최금녀 회우의 100선시 제목인 ‘한 줄, 혹은 두 줄’을 소개한다.

〈한 줄, 혹은 두 줄〉

조간朝刊에는 아침마다 창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뜬다
이름깨나 들어본 사람이나
생똥맞은 사람이나 한 줄, 혹은 두 줄
향냄새 흥건한 이름들
기억 너은 아니고
밥그릇 수대로도 아니고
계급장대로도 아닌 것 같고
평수대로? 그날의 운세대로인가?
유독 향냄새가 짙하게 밀려오는
어떤 이름에선 잠시 침묵하고
한 번 더 그 이름을 불러보며 창을 닫는다
맑은 아침 공기 속에서
죽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아둔한 나도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알아듣는다
한 줄, 혹은 두 줄이라는 그 말귀를.

〈활판공방 ‘시월’ 펴냄·값 5만원〉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노인의 새벽편지

정재호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
·9·10대 국회의원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2016 丙申年 새벽. 해돋이의 기상을 실어 평소의 회포를 적어 벗님들께 띄운다. 띄하니 삶의 끝자락에 걸터앉은 오늘이다. 80줄 한 가운데에 또 하나의 점을 찍고 아흔의 언덕바지를 바라보니 영락없는 ‘과팔망구’(過八望九)의 상노인이 아닌가.

노인에겐 나 홀로 가꾸는 나만의 비밀스런 텃밭이 있다. 빗바랜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린 추억들을 기습팩에 묻어놓고 생각날 때면 방문하는 마음의 텃밭이다.

찾아나서는 길섶에는 기쁨과 슬픔이 장승처럼 버티고 있지만 감히 막아서는 법은 없다. 별의별 색깔과 무늬가 아른거리는 생각의 바람개비가 쉼 없이 돌아간다. 추억의 열매들이 날개를 달고 바람개비의 틈새를 비상할 때면 노인의 눈빛은 나이를 잊어버린다. 미처 풀지 못한 여한(餘恨)을 맞닥뜨릴 때면 눈빛은 금세 삭아 내린다. 벼차오른 감흥을 주체하지 못해 쏟아내는 눈물의 굽기는 닭똥의 크기와 거의 맞먹는다. 사람 냄새가 진하게 번지는 순간이다. 추억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다. 단언컨대 추억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아름다운 향연이다. 그러나 한 쪽 구석으로만 애써 빠져들면 끝내 고독의 성곽에 갇혀 심약(心弱)을 불러들이기 십상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의 충고를 귀동냥한 것이다.

“추억은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오래 머물러 있기엔 고독한 장소다.”

미국의 전설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의 잠언은 귀담아 들만하지 않겠는가. 흔히 접하는 ‘과여불급’의 이치와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나는 벗님들에게 산책을 꼭 마르게 권유하고 싶다. 뒷집 지고 느긋하게. 숨을 몰아 쉴 때는 온몸을 흔들고 세차게 걸어도 좋다. 걸음의 완급을 조율하면 더욱 좋다.

견노라면 덕지덕지 누렇게 쌓인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데 안성맞춤이다. 특히 새벽의 산책길은 완고한 무신론자도 신앙의 싹을 틔우는 놀라운 변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연하장은 늘 그랬듯이 올해에도 새벽의 해오름이다.

새벽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빛의 언어’이다. “새벽은 인간의 원죄를 청소하는 최고의 선물이기에 새벽은 살아있어야 한다.” 라고 설파한 ‘죄와 벌’의 작가 톨스토이의 명언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집에서 걸어서 7~8분 거리의 야트막한 산길을 자주 오른다. 날씨가 심술을 부리지 않는 한 몸에 땀 새벽의 산책은 이어진다. 산이라고 우기기엔 쭉스러운 얇전한 뒷동산이지만 명색이 ‘정발산’이라는 팻말이 새벽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다. 제법 맵시를 뽐내는 숲속의 산책로는 경기 북부 일산(一山)의 명물이다. 이 나이에 드높은 삼각산 허리춤까지 용케 올라서는 ‘깁다구’는 필시 새벽의 산책 덕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새벽을 밟고 한참을 걸으면 속된 잡념 따위는 벌써 저만치 줄행랑친다.

새벽은 산술(算術)과 권술(權術)로 주름 잡혀 타인의 뒤통을 가로챈 포식자에게 망가진 양심의 부활을 궁리하게 하는 맑고 바른 정기(正氣)를 공급한다. 한데 묵은해 막판에 백성의 심기를 성나게 했던 풍경을 되짚어 보자. 거두절미하고 차라리 선무당의 굿거리장단을 댄아버린 정치의 현장. 그들이 제구실도 못한 채 토해낸 메마르고 너절한 수사들. 폐법의 역지가 단숨에 법치(法治)를 몽개버린 집단 난동의 흔적들.是和 非의 틈바귀를 숨바꼭질 하는 양시양비론에 발목 잡힌 지식사회. 그 알박한 비위 맞추기의 민낯들. 약삭빠른 장삿속으로 되레 세상 물정을 어지럽히는데 앞장 선 사이비 언론들. 낱아빠진 이념의 뒷에 걸려 사리분간을 못하는 운동권 흥위병들의 앙상한 색맹(色盲)현상들. 광복 70년 세월에 하나같이 철부지의 꼴불견이 아니던가. 새벽의 참 맛을 안답시고 노래하는 주제에 나는 아직껏 미생(未生)의 길목을 서성대고 있다.

17세 때 온전히 다듬지 못한 시어(詩語)들을 훑쳐 짜깁기한 시집을 냈으니 발칙한 무음을 범한 처지다. 언론에서 뼈마디를 여물게 한 탓에 ‘글쟁이’ 소리를 듣고 있다. 밀천이 쭉아 어설픈 글줄을 엮어왔다. 부피로만 따지면 어지간히 많은 글을 써온 모양새다. 생전의 업(業)으로 여기고 오늘도 육필로 꺾꺾 눌러쓰고 있다. 아날로그 세대의 만형뿔을 자처하는 터라 생때 같은 ‘컴맹’인 셈이다.

‘철나자 망년난다’는 속담이 있다. ‘철’이란 사리를 가려내는 감량을 뜻한다. 열매가 익어가는 진화의 수순처럼, 사람에게도 성숙의 계절이 있기 마련이다. 늙은이들은 숙성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렸겠지만 온몸으로 겪은 산전수전의 흠먼지와 그 진하다 진한 땀 냄새. 그리고 책상머리에 수북히 쌓인 책갈피 속의 경륜을 그냥 팽개칠 순 없지 않겠는가. “노인 한 사람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 소실하는 것과 같다.”는 서구 쪽 어느 나라의 경구가 떠오른다. 대추 한 알을 보고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라고 노래한 장석주 시인의 노랫말 한 구절이 뜨겁게 와 닿는 새벽이다.

“... 못간다고 전해라.” 25년의 무명을 털고 단숨에 온 세상을 가로지른 대박의 여가수 이애란이 저승사자에 당당히 맞선 노래 ‘100세 인생’의 그 가락을 따라 부르는 병신년의 새벽을 함께 맞자구나. 벗님들 파이팅! ☞

유행가와 가요무대

살며 생각하며



박현태

·전 KBS 사장

일본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소설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많이 팔릴 뿐 아니라, 일본인 배우들이 서울서 열연하는 연극도 만원을 이룬다고 한다. ‘친일’이 정치판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보고나온 우리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무라카미의 작품은

감정의 표현이 섬세해서 좋다”, 라고... 감정의 표현이 섬세하기로 말한다면, 그것은, 소설 뿐 아니라, 아마도 저들의 유행가 가사와 곡조를 꼽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행가 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미소라 히바리’ 일 것이다. 그리고 ‘히바리’의 대표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가 마사오’(古賀政男)가 작곡하고 직접 반주한 ‘슬픈 술’이라고나 해야 할, ‘카나시이 사케’ 일 것이다.

‘나 혼자 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이별의 눈물의 쓴 맛이 난다.

마시고 잊고 싶은 그대 모습이 마시면서 글라스에 다시 떠오른다’

‘아아, 헤어진 뒤의 허전함이며! 이것은 미련이겠지요?

그 사람의 모습,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마시고 있지만,

술은 오늘 밤도 나를 슬프게 하는구려.

술이며, 어찌 하면, 어찌 하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나요... 잊을 수가 있나요...’

‘나 혼자 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이별의 눈물의 쓴 맛이 난다.

사랑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을 울면서 원망하며 밤을 새운다.’

대사는 1절과 2절 사이에 곁들여진, 연극적, 독백이었다.

‘히바리’는 이것을 읊조릴 때, 반드시 한 순간, 번쩍 하고, 눈에 눈물을 보였다. 이 장면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이 방면의 전문서적에 의하면, 당초에는 이 대사가 없었다고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나온 ‘히바리’가 넣자고 직접 제안을 해서, 부랴부랴, 추가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이 가수는 보통의 가수가 아니다. 작사자와 작곡자가 지어준 대로 부르는 보통의 가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유행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모두 ‘유행가’라고 불리다가, 어느새 양쪽에서 모두 ‘가요’라고 바뀌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종잡을 수 없다. 한동안 일본에서는 ‘엔카’(演歌)라고 불리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뽕짝’ 혹은 ‘트로트’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양쪽에서 모두 ‘가요’로 정착된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한때 유행가를 ‘왜색 가요’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식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작곡자 ‘고가 마사오’가 소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고가’는 해방 전 서울에 살았으며, 당시 상업학교의

명문이던, 선린(善隣)상고 출신이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명치(明治)대학’에 들어가, 취미로 ‘만도링’ 클럽을 만들었으며, 졸업 후에는 은행에 들어갈 작정이었으나, 마침, 레코드 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음반회사의 전속 작곡자로 스카우트되고 말았다. 따라서, 가요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행가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고가품이던 축음기를 듣고는 크게 감동했다.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뭘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기도 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놓고...’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소설이, 연극이, 사람이 웃기고 울리겠지만, 유행가도 사람을 웃기고 울릴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유행가를 가리켜 ‘3분 드라마’라 부르기도 하지 않던가. 이러다가 어찌어찌 내가 KBS 사장이 되었다. 1985년 봄이었다. 그해 가을이 되자 나는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KBS에는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한 연예 프로그램은 여럿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주역들이라고 해야 할 노장층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는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중장년층이야말로 이 나라의 자랑이다. 이들이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하루는, 간부회의에서 이를 정식으로 제의했다. 내가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한 것은 내가 이 프로의 이름을 ‘가요무대’라고 명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내가 생각했던 품격 있는 프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졸작이었다. 다음날 아침의 간부회의에서 나는 점잖게 나무랐다. 그러면서, 나의 취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회의에서 나는 책상을 쳤다. “나는 KBS에 방송전문가들이 우글우글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 여태까지 이 일에 관여했던 사람은 다 손을 떼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다. 해산!”하고 일어섰다.

그런 곡절 끝에 새로운 담당자로 조의진 PD가 결정됐고, 사회자는 김동건 아나운서로 결정되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작품은 환골탈태 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KBS는 지난 11월 16일(2015년) 월요일 ‘가요무대’ 방송 30주년 기념 100분 쇼를 방송했다. 나는 경향각지의 친지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KBS에는 내 앞에도 몇 사람의 사장이 있었고, 나 이후에도 여러 사람의 사장이 있었으나, ‘가요무대’ 같은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났던 충분한 보람을 안고,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국 3,204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2013년 42개 시범학교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해마다 확대해왔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3년 6학기 가운데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중학교 5년 과정 중 3년을 마치고 학생이 선택하여 1년간 쉬면서 다양한 체험과 직업 활동을 한다. 처음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이 과정을 거친 학생의 사회적 능력이 거치지 않은 학생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서 도입 40년 만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도입 4년 만에 전면 실시한다. 자유학기제 첫 강의 소감과 자유학기제 발전 방향, 그리고 대한언론인회의 역점사업이었던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의한다.

자유학기제 첫 강의 절벽 앞에 서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서 이론과 현실의 틈은 넓었다. 아이들은 흥미와 재미를 바라는 데 강사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끌어내려하니 아귀가 맞을 턱이 없다. 아이들은 관심 없고 강사는 지친다. 지난해 대구광역시 M중학교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을 처음 맡았다. ‘미디어반’이라기에 학생들의 지적 욕구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 예단했다. 지도안 주제를 ‘나도 기자다-꿈을 찾아 떠나는 신문여행’으로 거창하게 잡았다.

신문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 기초적 이론을 시작으로 꿈나무 그리기, 친구 인터뷰하기, 기사 읽고 만평 그리기, 지역기관 보도자료 보고 기사 쓰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강의 퇴직언론인 활용 모색을

나의 제언



이규섭

·본회 회우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강사

삭지도, 우리 동네 역사 문화 탐방 등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신문만들기 과정에 반영시켜 결과물을 도출하고 ‘신문여행’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오 마이 갓~” 현장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미디어반 학생들은 미디어에 관심이 없었다. 20여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희망하는 곳을 지원했다가 정원 초과로 떠밀려 왔을 뿐이다. 담당 선생님도 전후사정을 설명하며 “재미있게 해 달라 ‘고 주문한다. 동영상도 3분 초과하거나 재미없으면 안 본다’고 한다. 재미만 추구하면 미디어강사 보다는 피에로가 적격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강의 내용이 좋다고 한들 아이들이 외면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2차시부터 흥미요소를 가미시켰다. 난민문제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세 살 아기 크르디의 기사와 사진을 보여주며 한 컷 만화로 표현하라는 과제를 냈다.

파도가 휩쓸리는 해변에 싸늘한 시신으로 쓰러진 크르디를 선포하게 그린 뒤 ‘천사, 날개는 없어도...’ ‘난민 없는 나라로~’ 상상력과 독창성이 드러나 숨통이 트인다. 만화 ‘야쿠바와 사

자’ 일부를 제시한 뒤 그 뒷이야기를 모듈별로 토론하여 전개하라는 과제도 흥미유발 효과가 컸다.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는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활용한 동영상과 카드뉴스 만들기, ‘증강현실’ (增強現實·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활용은 인기 짱이지만 흥미유발에 영합하는 것 같아 ‘스마트 폰 바구니 만들기’로 바꿨다. 강의 주제는

‘휴대폰의 절규, 주인님 나 쉬고 싶어요’로 설정했다. 학습 목표는 ‘스마트 폰 절제하고 활자와 친구하기’다. 자신이 만든 폰 바구니에 이름 붙이기도 했다. ‘스마트 폰 휴게소’, ‘휴대폰 쉼터’ 등 재치가 넘친다. 폰 바구니는 휴대폰 뿐 아니라 이어폰, TV리모콘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수업지도안을 수정 보완하면서 8차시 16시간 강의 끝에 모듈별 신문만들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체험 인프라 구축 자유학기 성공 열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떡방’ 방송 프로그램 영향으로 요리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제대로 된 체험 활동을 펼치려면 조리시설이 갖춰진 요리학원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게 효과적이다. 재료비 등 비용이 만만찮아 강사를 초빙한다. 교실에서는 화재를 우려하여 조리 대신 햄버거와 김밥을 만든다. 요리체험이라고 하기엔 낮간지럽다.

치밀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동아리 형태의 간접체험에 그치고 만다. 미디어반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문사와 연계, 현장을 방문하여 기자들의 취재활동, 신문 제작과정 등을 체험해야 효과적인데 교실에서의 창의적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칭 ‘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발족 제의

전직 언론인을 활용한 NIE 강사 중 최고령 강사로 지난해 60시간 교육을 받고 자유학기제 강단에 섰다.

차제에 본회에서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별도의 가칭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발족시키면 어떨는지? 퇴직언론인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콘텐츠는 다양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초·중고 및 군장병 대상 인성교육, 학교와 전국도서관을 중심으로 글쓰기와 독서지도, 신문을 활용한 논술 및 자소서 쓰기, 노인복지센터와 지자체 문화교실의 자서전 쓰기와 자서전 윤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 지식 나눔과 봉사 개념의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활성화가 보장 된다.

본회와 언론재단이 공동 추진한 퇴직언론인 첫 실태보고서도 65%가 일거리 없어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언론인 경륜 활용방안에 적극 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4]

얼마 전에 한 독자의 문의를 받았다. 졸저 ‘민족사를 바꾼 무인들’ 가운데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가 궁금스러워 한 점은 온달(溫達) 장군에게 과연 후손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은 필자의 책을 읽고 ‘삼국사기’ 온달열전을 다시 한 번 찾아보았는데,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平崗公主) 부부에게 자식이 있다는 대목은 없었다고 했다.

그 독자가 읽은 부분은 온달이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치러 내려가기 직전을 그린 장면인데, 내용은 이렇다. ‘...대궐을 물러나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 아내 평강공주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출전을 알리고 작별을 했다. 그때 눈먼 홀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지만 사랑하는 평강공주와 귀여운 자식들과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역사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라도 구경하던 바보였으나 하루아침에 평강왕(平崗王)의 사위가 된 고구려의 용장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유명한 러브스토리, 극적인 로맨스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달 장군을 도시조(都始祖)로 모시는 문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온달 장군을 도시조로 모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봉성 온씨(鳳城溫氏) 문종이다. 봉성은 오늘날의 전북 김제 금구 땅이다. 온달 장군의 후손으로서 고

온달(溫達) 장군의 후손

溫故知新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려 공민왕(恭愍王) 때 우부시랑을 지낸 온신(溫信)이 신돈(辛叡)을 탄핵하다가 봉성으로 내침을 당해 그곳에서 세거하게 되었으므로 그 후손들이 온달을 도시조로, 온신을 제1세조로 모시고 본관을 봉성(금구)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게 온달 장군을 조상으로 모시는 후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 독자도 그제야 납득이 간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필자가 온달 장군의 후손인 봉성 온씨를 처음 만난 것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84년이었다. 그때 온달 장군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 그의 전사지로 추정되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온달산성을 처음으로 답사했는데, 당시 봉성온씨종친회장이던 온명오(溫明五)씨, 그리고 영월의 향토사학자 박영국(朴泳國)씨 등과 동행했던 것이다. 그날 답사를 하면서 온달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다가 온명오씨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가끔 다니면서 보면 온달식당이니 온달주점이니 하는 간판이 눈에 띄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온가들은 기분이 안 좋지요. 아, 자기들은 자기네 조상 이름을 식당이나 술집 상호로 삼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필자도 수십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달식당이니 온달주점이니 온달반점이니 하는 간판을 본 적이 있

어서 그냥 웃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만약 김수로왕(金首露王)과 김유신(金庾信) 장군의 후손인 김해 김씨들이 수로식당이니 유신반점이니 하는 간판을 본다면 기분이 편치 못할 것이다.

또한 원효사란 이름의 절은 많지만 원효식당이니 원효주점이니 하는 간판을 본다면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설총(薛聰) 부자의 후손인 경주 설씨와 순

창 설씨들의 기분이 불유쾌할 것이다.

온달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남정(南征) 길에 올랐다가 아단성(阿旦城)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의 용장이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나는 이름을 남긴 영웅·호걸·기인·재사는 많지만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역사의 무대를 유유히 가로질러간 인물은 온달 장군밖에 없다. 바보라고 놀림 받으며 구걸하여 늙고 눈먼 홀어머니를 봉양하던 온달이 무슨 까닭에 평강공주의 남편이 되고, 용장(勇壯)한 고구려의 무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동안 온달 장군이 전사한 아단성이 서울 성동구 광장동과 구의동에 걸쳐 있는 백제의 옛 성인 아차산성(阿且山城)으로 비정(比定)되어온 것이 사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엔 단양군 영춘면의 온달산성이 고구려의 아단성이었다는 설이 우세한 실정이다.

역사를 공부하며 답사를 하다 보니, 역사적 인물의 무덤도 자주 찾게 되고, 또 그 후손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역사적 인물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뿌리라 할 수 있는 조상이 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조상 없는 후손이 없다.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람은 누구나 언행 언동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이앤엑스
KOREA E & EX INC.

소중한 당신의
‘가치’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KIMES 2016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6. 3.17- 20 / COEX
www.kimes.kr

KOBA 2016

국제방송 · 음향
조명기기전시회

2016. 5.24- 27 / COEX
www.kobashow.com

K-PRINT WEEK 2016

인쇄기자재전/레이블전
디지털인쇄전/인쇄패키지전

2016. 8. 31- 9.3 / KINTEX
www.kprintweek.com

Koplas 2017

국제 플라스틱
고무산업전시회

2017. 3월중 / KINTEX
www.koplas.com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 ex@eandex.co.kr



급성후두개염을 아십니까?

“선생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오전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박성운 원장이 날보고 하는 말이다. 나는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덤덤한 표정이었던가 보다. 심했던 목의 고통은 훨씬 덜해 진 상황이었다.

박 원장이 답답한 모양이다. 다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되풀이한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말입니

다.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급성 후두개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급성 후두개염이 뭔지 모르는 난, 나에게 던져지는 말들이 생뚱맞기만 했다.

답답한 모양이다. 박 원장이 설명을 덧붙인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아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급성 후두개염은 심각해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걸어 들어온 30대 남자가 죽는 것을 겪기도 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월요일인 지난해 11월 23일 감기 기운이 느껴졌다. 예방주사도 맞았겠다. 신경 안 쓰고 지냈다. 저녁 시간에 약속된 민요 공부만 취소했다. 화요일, 좀 심해지는 것 같아 죽염 물로 씻어 내기만 열심히 했다. 그 날 저녁에 갑자기 상황이 험악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새웠다.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엔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내과 병원에 갔다. 약 지어주고 엉덩이에 “캉” “캉” 주사 2대 놔줬다. 과연 명의다. 편작이 따로 없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밤이 되니 효험이 줄었다. 목요일에 또 내과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캉” “캉” 2대 맞았다.

그러나 밤이 되니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안되겠다 싶어 금요일 오전에 이비인후과를 찾아 박 원장과 마주한 것이다. 코 내시경 등의 장비를 활용해 목안과 콧구멍 속을 살펴 본 박 원장의 첫 설명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였던 것이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물었다. “여긴 입원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면 바로 입원조치 할 텐데... 우선 주사 맞고 약 처방 드릴 테니 먹고. 진료의뢰서 써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해지면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지체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잘 넘기면 내일 다시 오시구요.”

〈후두개(喉頭蓋)는 혀뿌리의 뒤쪽에 있어 음식물이 후두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관이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염증이 생기면 아주 위험해 질 수도 있다. 기도를 막아 호흡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급성 후두개염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죽었을 거라는데 기분은 멀쩡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도 잘 먹었다. 바짝 긴장한 아내가 준비한 과일과 음료도 잘 먹었다. 삼키는 데 아픈 것도

생활속에서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많이 줄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면(?) 심히 아팠던 24일 화요일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으면 오늘 좀 치러졌을 장례식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 날 나는 꼬박 밤을 새웠다. 그래도 목이 덜 아프니 견딜 만했다. “잠은 못자도 죽지는 않는다.”는 어느 의사 말이 떠오르기도

했다. 죽음이란 말을 듣고 나니 온갖 생각들이 몰려들었다.

새벽까지 이 일 저 일을 생각하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 봤다. 자신을 철저히 챙기지 못했고 자신이 없어 다 자란 아들, 딸내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못 남겼다는 회한이 들기도 했다.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뭐를 남길 가를 생각하기도 했다.

주말을 보냈다. 상태가 그대로 인 것에 더럭 겁이 났다. 안 되겠다 싶었다. 11월 30일, 월요일에 서둘렀다. 이비인후과에 들러 진료의뢰서를 받고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 거기서 정말 엉망이었다. 도폐기시장이었다. 아수라장이었고 지옥 같았다.

머리 깨져 피 흘리고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알이 빠진 환자가 우선이니 속으로 후두개가 붓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다.

“후두개가 계속 부으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겁이 났으나 도움을 주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11시 전에 응급실에 갔으나 오후 4시가 넘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급해진 아내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운 후에야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입원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를 뒤에 퇴원했다. 그리고 멀쩡해졌다.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 왔다. 가슴기 자주 틀어 놓으라는 충고를 들은 것 빼고는 달라진 것도 없다.

주치의의 말이 무서웠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선생 같은 환자가 한 달에 2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은 괜찮으신데 한 분은 기도가 막혀 목을 째 호흡을 했으며 호스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중환자실로 갔고요.”

급성후두개염에 걸리면 ‘목을 째’는 상태가 되거나 ‘죽기’도 한다는 얘기다. 목을 만지며 죽음이 스쳐갔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게’ 해주셨는지?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생각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모든 게 OK란다. 덕분에 꽤 비싼 보약을 먹고 있다. 면역을 키워야 한 대서...

급성후두개염은 나이와 상관없고 진행이 빠른 질병이란단다.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게 급선무란다. [주]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치매예방 위해 스트레스 관리 중요

치매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알츠하이머 국제학술지(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는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알츠하이머치매로 이어지는 사고력 감소 현상이 커진다는

미국 뉴욕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신경과 립톤(Richard Lipton) 교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립톤 교수는 치매가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강도를 확인하고 매년 한번씩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일에 대한 기억력과 사고력 및 적응력을 여러 가지 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면서 3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 조기 인지기능장애 발생위험이 30%나 높게 나타났다.

립톤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우울증, 연령, 성, 교육정도 나아가 알츠하이머치매 유전자 등 다른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보정한 수치이라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립톤 교수는 스트레스가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기전은 코르티솔(cortisol) 분비로 뇌의 신경세포 수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르티솔은 긴장, 공포, 고통, 감염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드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반응하여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 중 하나로 간, 근육, 지방세포 등에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몸 전체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는 면역수준을 낮추어 감염병 발생위험

을 높일 뿐 아니라 심혈관에 영향을 주어 심박동 수를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등 작용으로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흡연과 과음을 더 자주하게 되고 운동은 소홀해지기 쉽다. 이 같은 생활 형태는 비록 알츠하이머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기능 감퇴와 관련이 있다.

립톤 교수는 사람에게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면서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면서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based meditation), 요가(yoga) 그리고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과 같은 요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보다 우선 수면을 잘 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숙면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주]

본회 2015 연말 바둑대회 성황

대한언론인회 2015년도 연말 바둑대회가 작년 11월 30일 오후2시 종로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열렸다.(사진)

6회째를 맞은 이날 대회는 15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대국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B조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이용화 회원이 입상권에서 탈락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며 내년을 기약했고 A조에서는 역시 우승 후보였던 이상우 회원이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불참하여 다소 맥 빠진 분위기였다.

대국 결과는 A조(1~3급)에서 우승 정기정, 준우승 문준호, 3위 천승준 회원이, B조(4급 이하)에서는 우승 이성호, 준우승 박영길, 3위 김세경 회



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이 밀양 도자기 제품을 시상품으로 기증,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참석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후 인근의 국립관에서 불고기요 망년회식을 갖고 또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주]

서강화 원로회우 별세

서강화 원로회우가 지난 12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강북삼성병원에서 27일 오전 9시 발인했다. 고인은 1930년 3월 10일 대구에서 출생, 성균관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 일본게이오대 신문연구소 연구원, 경희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했다.

1958년 대구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교정부 차장 지방부장 문화부장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등을 역임했다.

조선일보로 옮겨서는 편집부국장 겸 교열부장, 편집위원으로 정년퇴임했다.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 27일 오후 김은구 회장이 대표로 조문했다.

서강화 부장님 영전에

김충수(전 조선일보 교열부장)

“김형, 교열은 신문 제작 최후의 보루이고, 교열기자는 최초의 독자입니다. 교열에서 오류가 걸리지 않으면 수십만 독자에게 불완전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체육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해야만 완벽한 교열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열기자는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1973년 조선일보에 갓 입사했던 제게 서강(瑞岡) 서강화(徐康和) 선생님은 범접하기 힘들만큼 큰 스승이었습니다.

173센티미터의 흰칠한 키에 강직한 국어학자 스타일, 쉰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유난히 희어 헬쓱하기까지 한 선생님의 무표정한 모습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서강화 선생님, 선생님의 선종 소식에 억누르기 힘든 회한과 슬픔에 잠긴 오늘, 예전에 부르던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부국장님' '선생님' 보다는 더 친근감이 느껴져 마지막으로 그리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음악·미술·서예 등 예술에 취미를 붙였던 부장님께서는 점심때면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들어가 바이올린과 첼로를 쳐시곤 하셨지요. 서툰 연주 솜씨에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지만 차츰 그 연주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했고, 짹짹이 맨손체조를 하며 근육을 풀어주시던 부장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면학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던 부장님께서는 1955년 대구상고, 59년 성균관대를 졸업, 74년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9년에는 일

본 게이오의숙대(慶應義塾大) 신문연구소로 연수를 떠나셨더랬지요. 귀국해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 다시 86~89년 경희대 대학원 국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글은 암클이 아니었다.’ ‘국어정화’ 등 세 권의 국어관련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1959년 대구일보 기자로 입사, 문화·교정·경제부장을 두루 거치며 기자수업을 했고, 69년 조선일보 기자로 스카우트되어 만 20년을 봉직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재야국어학자의 면모를 과시, 편협 보도용어심의위원,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85년 편집부국장 승진 후에는 편집위원으로 조선일보 일본지사 문서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89년 정년을 맞은 부장님께서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교양국어 강사, 국사편찬위원회 문헌연구원, 전국한자교육연합회 지도위원으로 10여년을 꾸준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렇듯 연부역강한 면모를 과시하시던 부장님께서 6년 전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했고, 1년 후 다시 다쳐 재수술, 또 다시 낙상하셔서 오른팔을 못 쓰는 지경에 이르셨다지요. 강직한 성품으로 “이러한 사실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라.”시어 못 알렸노라며 사모님께서는 흐느끼셨습니다. 6년 여 세월 동안 문안 전화 한 통 올리지 못한, 아니 찾아뵙고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지 못한 제 부덕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여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동한의 목소리로 마지막 불러보는 서부장님, 부디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

이상근 원로회우 별세

이상근 원로회우가 12월 26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29일 아침 발인했다. 고인은 1932년 10월 20일 충북 괴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치과대를 졸업, 1956년 시사통신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시사통신 공채 1기로 입사, 정경부 취재부장 특신부장을 거쳐 인천신문 편집부국장, 서울 FM방송 뉴스실장, 매일경제신문



에 몸담은 후 한국주간신문 윤리위원회 조사부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간사 사무국장을 지냈다.

대한언론인회는 28일 오후 고인의 빈소에서 추도식을 갖고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은구 회장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조성국 원로회우, 최서영, 남시욱, 이덕주, 이종식, 정운중, 나용경 회우가 참석했다.

이상근 형을 보내며

박기병(본회 상담역·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이형 주변의 그 많은 친구들은 누구와 술잔을 주고받고 누구와 웃음을 나누라고 흥연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십니까.

항상 모임에서 빛나는 재치와 유머로 좌중을 이끌던 이형이 세상을 떠났다니요.

요 근래에 건강이 좋지 않아 모임의 총무일도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임에는 빠지지 않았습다. 세상 떠나기 하루 전에도 전화 통화로 29일 만나 송년회를 갖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 날아왔군요. 이제 멀리 떠나시는 길에 신문기자로, 편집인협회 사무국장으로 남기신 발자취를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이형을 다시 한 번 회상해 봅니다.

박력 넘치는 필치, 따뜻한 음성, 지극한 동료애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다. 이형은 다정다감하고 넓은 포용력으로 50년대 말 시사통신 기자·국회 출입기자로 인연을 맺어 같은 정치부기자의 동질감으로 교분을 쌓아왔습니다.

이형은 70년대 말 언론계를 떠나 편집인협회 사무국장으로 편집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친목의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솔직담백한 성격에 박력있는 추진력,



박기병 회장이 조사를 읽고 있다.

정의감 넘치는 기질로 선·후배 언론인들의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형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이형은 언론계를 떠나 자유인이 되면서, 국회가 태평로에 있을 때 함께 출입하던 선배 동료정치부 기자들의 친목모임인 ‘태평로회’를 만들어 매월 이슈가 있는 정치현안문제를 제기, 열띤 토론을 하는 모임을 이끌어왔습니다.

어떻든 태평로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떠났습다.

내 짐작입니다마는 지난 40여년 동안 정치부 기자시절부터 이상근하면 떠오르는 것이 술과 담배였습다. 결국 술을 너무나 가까이해서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근형, 이제 이승에 남겨놓은 모든 인연은 훌훌 털고 편히 가십시오. 30년 언론계에서 함께한 박기병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본회 산악회, 북한산 둘레길 송년산행



북한산 둘레길 3구간 흰구름길 입구에서 기념촬영.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12월 2일 북한산 둘레길 3구간(흰구름길)에서 올미년 한해를 보내는 송년산행 행사를 가졌다.

겨울을 재촉하는 듯 가랑비가 없이 내리는 우중임에도 김영호 김조영 김휴선 나용경 도준호 맹태균 안종우 이병대 이상호 이우진 이정세 장 옥 정운중 정창기 최귀조 회우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와 이병대 정운중 이상호 김휴선 회우는 찬조금으로 산행을 빛냈다.



손세일 회우 수상 축하 일산언론인회

일산언론인회(총무 이태영·본회상담역)는 지난 12월 13일 일산에서 정례모임을 겸해 손세일 회우의 제6회 민세(民世)상 수상 축하회를 가졌다.(사진)

일산언론인회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언론인 모임으로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정기적으로 만난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부부공저 '70대 인생-' 우수도서 선정



김 현(여행작가)회우= 부인 조동현씨와 함께 발간한 책 '70대 인생을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이야기'가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문체부 교양 도서)이 선정하는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고령사회와 인생 2막' 특강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회우= 12월 28일 오후 5시 과총회관 12층 아이리스 홀에서 열린 과우회 송년모임서 '고령사회와 인생 2막'을 주제로 특강했다.

'대한민국탄생' 사진전



인보길(건국기념보급회 회장)부회장= 12월 21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탄생' 사진전 개막식을 가졌다. 2016년 2월 21일까지 일반에 전시될 이 전시회는 광복 70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해방 후 3년간 벌여졌던 격동의 드라마 '나라 세우기' 역사현장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다.

흥사단합창단 공연에서 독창



임상학(전 경향신문 교열부장)= 12월 28일 오후 7시 대학로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흥사단합창단 공연에서 솔로로 3곡을 열창했다. 이날 공연에선 합창 12곡, 독창 3곡이 연주됐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 받아



전신병(전 동화통신 정치부장)회우= 지난 12월 8일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준비활동과 기관발전에 기여한 평통위원회에 수여하는 201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을 받았다. 전 회우는 현재 민주평통 일산지역협의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경남 동우회장에 선임



제재형(본회 고문)회우= 지난 12월 9일 서울 '용사의 집'에서 열린 재경 경남도민회의 원로모임인 경남 동우회(약칭 경우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년.

'미디어파일 시니어 직능클럽' 창립



맹태균(전 경향신문 편집위원)홍보출판위원장= 12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20길 유성빌딩 402호에서 '미디어파일 시니어 직능클럽' 개소식을 가졌다. '미디어파일 시니어 직능클럽'은 퇴직자의 경험과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맹 회우가 대표직을, 이달영 회우가 주간직을 맡았다.

경인일보 칼럼 '참성단' 2,000회 집필



오동환(경인일보 객원논설위원)회우= 경인일보 대표 칼럼 '참성단' 집필을 책임지고 있는 오 회우가 지난 12월 9일자로 2,000회째 칼럼을 집필했다. 오 회우는 지난 1981년부터 경향신문 '우리말 산책' '여적', 강원도민일보 '吳東煥 시사칼럼'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3,500여회의 칼럼을 썼으며 경인일보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부터이다.

학술대회 토론진행



윤재홍(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논설위원= 지난 12월 18일 청주대학교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최한 '미디어와 소통, 정치와 언론의 공정성 위기와 전망'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사회자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창화 본회고문 전주비엔날레 작품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고문이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명사초청으로 출품했다.

작품은 이백(李白)의 시 '산중문답'.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프레대회는 작년 12월 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김제 금산사 등에서 열렸다. (사진은 출품작 이백의 '산중문답' 옆에선 조창화 고문)



본회 이사회, 송년회-8순연등 논의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2월 11일 오전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제 148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송년모임을 겸한 팔순 축하연행사와 20대 회장 등록 마감, 선거관리위원장 위촉 등 향후 선거관리 절차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팔순회우 축하의 경우는 고회 때 기념품이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회우에 한해 축하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팔순 이상의 원로회우에 대한 예우는 회장단이 알아서 결정하기로 했다.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김경중 회우=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68 101호 (간석동)

전화 011-9259-8570 (우) 21545

김명식 회우=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2차아파트 505동 103호

전화 031-988-3027

김 화 회우= 010-8177-2813

박영래 회우=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더클래식 500 A동 4302호

전화 010-5221-4915, 02-2218-5432

윤석웅 회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66 리츠하우스 303호 (우) 03784

윤홍섭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14동 2001호

(신봉동 신봉마을 자이 2차 아파트) 전화 031-266-9311

장준식 회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110동 701호

(하계동 학여울 청구아파트) (우) 01775

최서영 회우=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신반포 8차아파트 309동 1203호

(잠원동 60-3) (우) 06522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11월 28일 부터 12월 30일까지)

김관태(16)	김광희(14,15)	김담구(16)	김명식(입회비 잔액)
김병원(입회비)	김종헌(16,17)	김준길(입회비 잔액)	김호기(15)
이대영(15)	이덕주(16)	이두환 (15)	이민섭(입회비)
이병국(16)	이 형(14, 15)	조성하(16)	최선록(16)
한영도(16)	황유성(입회비 연회비)		

〈송년회때 내신분〉

고수웅(16)	김상준(16,17)	김선옥(16)	김영길(15)	김우상(14,15)	김진걸(16)
김태선(16,17)	김화(16)	동문성(16)	박광춘(16)	박명근(16)	박종서(16)
박진서(15)	서옥식(16)	손선무(16)	손세일(16)	송종문(15)	안평선(16)
양성목(16)	유한준(16)	윤석웅(16)	이남규(16)	이용화(16)	이우진(16)
이종문(15)	이종준(15,16)	정기정(15,16)	조덕일(16)	최신호(16)	최종수37(16)
홍성혁(16)					

〈다시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22일 열리는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2년 연속(2014.15) 연회비가 미납되지 않아야 함(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조 9항 참조)을 참고삼아 알려드립니다.

회우경조사

부 음

이흥기 회우= 12월 24일 부인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 바로잡습니다 ◀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한 '실록-못다한 이야기 5집' (2015년 10월 15일 발행)중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2쪽 고재혁(高在赫)을 고재혁(高在赫), 25쪽 권도호 약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경향신문 부산주재기자, 제2사회부 차장대우, 지방부 부산주재본부장, 문화일보 사회부장, 편집국기획위원.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SGI는 대승불교인 니치렌대성인
불법을 기조로 평화·문화·교육 운동을
실천하며 행복을 가치 창조하는
단체입니다.

한국SGI

서울시 구로구 공일로 54
대표전화 1566-1118
www.ksgi.or.kr
신도림역 2번출구

행복을 희망

을 만들어요



언제나 함께하는 한국SGI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한길만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전·자·랜·드

순수 국내 자본으로 27년간
토종 브랜드 전자랜드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힘이 되겠습니다.

가전 양판점 전자랜드

· 1666-8000 / 고객님의 계신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 080-870-8000 고객센터 센터 / 자세한 지점 위치 및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